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4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8년 10월 15일

[1]



모교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 앞에서. (좌로부터 金泰燁, 盧承權, 洪京煥, 張仁敬, 金仁起, 李珉和, 延炳善, 林炳辰, 張滙鎭동문) 커버스토리 8~9면

첨단의 벤처산업도 우리가 주도



관약춘추
서울대학은 좀 이상한 대학이다.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인데 대한민국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 46년 미 군정법령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47년 10월 15일에 개교한 탓이다. 그래서 개교당시 총장은 박사학위를 가진 미군 대위였다.

이 뒤로 서울대학은 21대 총장을 모셨다. 우리는 이들 역대 총장의 거취에서 서울대학이 겪은 역사의 일단을 읽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학 총장은 명이 짧다. 50년 사이 21대 총장이려면 평균 재임기간은 2년반 미만인데, 4년 임기를 채운 총장이 여섯 분인 반면 재임 2년 미만 총장이 10분이나 된다. 절로 이는 의문이다. 이래 가지고야 어느 겨울에 종합대학으로서의 체통과 전통을 세울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총장 교대 때마다 나왔던 대학개혁, 장기발전 계획들이 번번이 허공에 떠버린 까닭을 알 것도 같다.

문제는 역대총장 인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대학행정 전횡이다. 총장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뿐 아니라 이른바 학원소요대책으로 임기를 아랑곳 않고 총장을 갈아치우는 따위로 대학행정의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그렇기에 90년대 들면서 총장선출제가 도입된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실적은 어떤가. 지금까지의 선출총장 세

名總長 待望論

분중, 한 분은 교수정년에 걸려 도중 하차했다. 다른 한 분은 정부의 부름을 받아 임기중에 자퇴했다. 마지막 한 분은 뜻밖의 일로 낙마했다. 여전히 단명 총장이 줄을 잇고 있는 사이 사회일각에서는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교론」 따위가 드세졌고, 요즘은 설악은 「서울대 개조론」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 총장선출제면 다냐. 이런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문제는 총장 선임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얘기가 된다. 「영웅 대망론」 아닌 「명총장 대망론」이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새 총장을 모셔야 하고, 혼란 수습을 새 총장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바라건대, 이번에는 대학 안팎 모든 서울대학 사람들의 뜻과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총장을 모실 수 있었으면 한다. 그 결집된 뜻과 힘을 바탕으로 대학의 개혁과 발전을 자율할 수 있는 총장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장수하는 총장을 모실 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다.

물론 이같은 바람은 서울대학 사람들이 그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자질을 지녔음을 전제로 한다. 지금 진행중인 새 총장 모시기의 성패는 결코 「표」를 가진 이들에게만 달린 일이 아니란 얘기가.

(悅)

제5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열어

지난 9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5회 총동창회장배 야구대회가 열렸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李世震사무총장,鄭清喜대회운영위원장,申仁湜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32개팀은 순수 아마추어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鄭宗澤상임부회장은 金在淳 회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대학생활에서 진리를 찾으며, 스포츠를 통해 규율과 너그러움, 바른 경쟁의식과 협동심 등을 길러 참 인간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서울 여의도고 선수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變〉

오스트리아지부

金在淳회장 초청간담회 가져

오스트리아지부동창회(회장 全豐一)는 지난 8월 8일 비엔나 소재 「Fuhrgasslhuber」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全豐一회장, 李景鍵 前회장, 潘基

文대사, 張弘來동문, 趙靑遠대사관 참사관, 黃海根삼성지사장, 구현모 대사관 서기관 등 1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본회 金회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재미동창회 평의원회의 논의 사항과 해외지부에 동창회기를 제작, 발송하는 등 본회의 활동사항을 설명했다.

同會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12월에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좌로부터 趙靑遠, 李景鍵, 全豐一, 金在淳, 潘基文, 黃海根동문

미술작품

孫文子 作



「기다림」, 68×45cm, 실크스크린, 1996.

〈작가 약력〉

△66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66~70년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94년 파리 그랑쇼미에르 수학
△국전 입선, 미협·62회·훈율회 회원전
△현재 내잔갤러리 관장

주요목차

모임 탐방	5면
치대 1회(慶友會)	
지부 순례	6면
광주·전남지부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8~9면
벤처기업 대표 간담회	
화제의 동문	10면
玄鏡柄 소사정책개발연구원장	
특별 기고	11면
卞相根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문을 찾아서	14면
張榮植 한국전력공사 사장	



10월 18일 모이자!!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 집결

올해도 변함없이 서울대 동문과 그 가족 여러분을 관악으로 초대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에 거행될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는 그동안 쌓인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줄 흥겨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가을 정취를 맛보면서 모처럼 학창시절의 옛 정을 되새겨 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 내 —

- ◇일 시 : 10월 18일 (日) 오전 9시 출발
-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가족
- ◇산행코스 : 관악산 계곡→모교 농생대 수목원(안양유원지 뒤편)
- ◇참가비용 : 없음
-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 ◇경 품 : 소형 승용차 등 다양한 선물 추첨
-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가을이다. 그 가운데서도 바야흐로 仲秋. 이 맘때가 되면 달도 휘영청 밝고, 둥글게 꼭 차고 마음도 넉넉해 진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 안팎은 온통 시끄럽고 짜증나는 일이 많다. IMF나 세계적 대공황의 前兆니 해서 걱정 투성이다. 그러나 달을 보는 마음이라면 뭐 그리 쫓기고 초조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싶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옛말도 있듯이 아무리 정신없어도 잠시 숨을 돌리고 쉬어갈 수는 없을 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만한 겨를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여름 하늘이 밀리면서 흰해지는/ 가을 높은 하늘에서/ 흰빛이 내리니/ 젊음과 꿈의 푸른빛이/ 멀리 건너편으로 날린다/(中略) 서풍 찬바람에 나무 잎새들이 힘없이 진다/ 장미꽃잎이 우시시 지는 소리에 가슴이 울린다/ 갈대와 같이 조용히 생각하는 철/ 들도 생각에 잠든 빛/ 산마다 단풍이 들며 빨강게 타서/ 풀지 못한 영원의 祭石 위에 피를 흘리며 덩군다/

내가 좋아 하는 金班變의 시다. 이 몇줄의 시를 읽고, 바쁜 세상에 그야말로 풍월하고 있다고 푸



孫一柱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

념할 것인가. 어떤 名醫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대학 1학년때 익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본다고 한다. 우리도 원점에 돌아가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는 없을 까. 저달을 쳐다보며, 지는 낙엽을 밟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며 살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이 나라와 이 겨레의 장래를 위한 일인가? 양심의 가책은 없는가?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뜻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만해도 몸서리쳐지고, 생각했다가도 도리질을 하고 떨쳐버려야 할 오만 계책, 위계, 잔재주를 서슴없이 행동에 옮기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부질없는 짓들이

다. 하루주의를 말하는건 아니다. 동문들이여! 이 좋은 철을 맞아 단 하루라도 맑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 일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너무 경직돼 있다”

동문 칼럼

요즘 모신문사에서 실시한 전국대학 종합평가를 보면 서울대학은 제3위로 나와있다. 이제 서울대학이 최우수 지방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타대학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일류 대학은 아닌 듯 싶다.

그 점은 아시아에서마저 최고의 대학으로 못 꼽히는 것보다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은 끄떡하지 않는다. 아무리 뭐래도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니 특별히 홍보할 것도 없고 또 몸달아 할 주체도 없는 것 같다. 예비고사 전국수석은 으레 서울대학이고 모든 국가고시의 과반수를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니.

모범적 인물만 양성할 뿐

그러나 다른 눈으로 서울대학을 한번 되돌아보자. 우선 지난번 건국 50주년을 맞아 모신문사가 여론을 통해 선정한 50대 인물에 서울대 출신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쉽지 않았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중추인물군을 서울대가 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분야의 걸출한 인물에는 서울대 출신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정치가에도 서울대 출신이 드물었고 기업을 크게 일으킨 인물에도 서울대 출신이 별로 없었으며 문화예술쪽에는 평론가 李御寧씨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는 관계,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등 나라의 根幹을 이루는 모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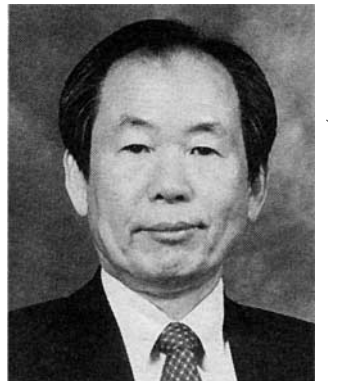
인물군 양성소 이상은 못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전쟁시대라 하고 또 현대가 영상시대지만 한국 최고의 영화감독, 무대·TV연출가, 극작가, 소설가, 시인, 배우, 지휘자, 화가, 가수, 탤런트, 비디오 아티스트 등은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 왜 서울대는 스피버그나 林權澤이나 白南俊이나 朴景利나 崔佛岩 등과 같은 대중사회의 영웅을 키워서는 안되는가.

대중사회의 영웅 키우자

해방직후 연극계의 태두, 극작가 柳致眞이 서울대에 연극영화과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다.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지만 만약 그때에 학과가 생겼다면 한국영화, TV, 무대예술 등의 수준은 세계에 손색없을 것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대학이야말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폭넓게 인재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은 너무 권위적이고 자만에 빠져있으며 硬直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 책임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柳敏榮
(61년 師大卒·단국대 교수)

前 예술의전당
이사장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중순에 양국의 도시를 방문, 관광을 하며 저녁 식사시간에는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고.

서로의 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池회장은 95년 세구찌동문의 별세 소식을 듣고 友人대표로 참석, 장례식에서 弔辭를 읽으며 특별한 친구의 죽음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매년 10월 양국 방문도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늙은 나이에 크나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池회장은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동문들과의 우정에 대해 이렇게 애기한다.

『솔직히 재학 시절에는 두 민족이 잘 섞이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반일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문화와 가치관이 달랐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신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일본인이었는데 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여 모교의 품으로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학시절 담임 교수였던 李春根(41년卒)치과원장을 비롯해 헤기, 가사이, 오가와 등의 일본과 한국의 동문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만날 수 있기를 池회장은 희망했다.

(美)



치대 43년 입학동기 모임 「慶友會」 일본 동문들과 국경없는 우정 쌓아

1943년 경성치과대학 전문학교(모교 치과대학 전신) 입학생은 총 1백27명이었다. 일본인 학생이 1백명, 한국인 학생이 27명으로 2차 대전이 한창 진행중일 때였다.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의 만남을 기념하고 우정을 다지자는 뜻으로 「慶友誌」라는 잡지를 만들어 각 학생들의 원고를 실어 발간했다. 그러나 일본인 교무처장은 사상이 불순한 모임이라며 즉각 해산할 것을 명령했고 양국 학생들의 우정도 잠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30여년 지나 극적 상봉

그후 극적으로 다시 만남을 갖게된 것은 경우회 회장인 池憲澤(47년卒·지현치과원장)동문이 70년대말 치과학회에 참석차 일본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을 때였다.

『세미나에 필요한 교재를 사러 호텔 지하 서점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학시절의 일본인 동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너 혹시 세구찌 아니냐 라고

하자 그 일본인 중년 신사는 한동안 저를 뵈며 쳐다보며 말을 얹더군요. 그러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야! 네가 살아 있었구나 하며 감격해 했습니다』

당시 가고시마현의 치과협회 회장인 세구찌동문과의 재회는 정말 기적같은 우연이었다고 池회장은 말한다. 두 사람은 그 만남을 계기로 의기투합, 잊었던 동문들을 수소문해 82년 한국과 83년 일본을 서로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83년 일본 방문 이후 또다시 서로의 소

식이 끊겼다고 한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90년 싱가포르 국제치과회의에 참석한 池회장은 또다른 일본인 동기를 만나 본격적으로 제2의 경우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양국의 동문들과 연락을 취해 나갔다. 91년 정식으로 재발족된 경우회는 전쟁 등에서 살아남은 일본과 한국의 동문들 50여명으로 구성됐다.

92년 일본인 동문들과 부인, 선후배를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한국을 방문



가운데줄 좌로부터 일곱번째 池憲澤회장.

지부 순례

광주·전남지부

연극·연주회 유치 등 회원 자발적 참여

글 : 李丞基(76년 工大卒·삼능건설 사장)총무

광주·전남지부는 90년 7월 洪承敏(41년 醫大卒)초대 회장을 비롯해 22명의 동문들로 구성, 출범했으며 91년 필자의 부친인 故 李光國(49년 工大卒·前 삼능건설 회장)동문이 동창회 명단을 작성,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현재 이사 60명, 총인원 7백50명(여성동문 30명 포함)으로 결집된 대식구가 됐다.

94년부터는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吳炳文(52년 師大卒·동신대 교수)동문이 회장을 맡고 필자가 총무를 맡으면서부터 동창회를 더욱더 활성화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지역 문화발전에 한 몫

98년 1월에는 李乃均(56년 商大卒·삼화도기 회장·관악회 이사)동문이 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년 1월에는 7백50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와 신년인사회 등을 개최,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정보교환 등을 통해 동창회의 금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기여하는데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

또한 각 주요기관장의 전·출입시 동문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송연 등을 개최, 동문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등 인간적인 면이 그 어느 지부보다도 훨씬 풍진하다고 하겠다. 특히 체신부장관을 지낸 李大淳(57년 法大卒)호남대 총장, 宋彥鍾(60년 法大卒)前광주광역시, 李東洛(64년 法大卒)광주교법원장,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崔仁基(66년 法大卒)여수수산대 총장, 元正一(67년 法大卒)광주교대 총장 등 저명인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본회는 그 어느 지부보다도 활성화되어 있고 각 동문들은 자발적으로 애교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본회는 문화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바 95년 7월 지역 음악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주문예회관 관악합주단(테너 朴世源,

피아노 白惠善)을 초청, 연주회를 가졌으며 이 때 관악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성 동문 기여도 돋보여

96년 11월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극단을 초청,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공연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동문들이 상호간 일치단결하는데는 여성동문들의 남다른 활동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각자 바쁜 와중에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환기시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모임 참석의 의욕을 높이게 하는데는 여성 동문들의 역할이 크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본회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년 봄에는 등반대회를 개최, 체력단련을 통한 동문들의 단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마련하여 동문 가족도 동창회의 일원이라는 참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지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李乃均회장, 첫째줄 좌로부터 세번째 필자.

건강을 지킵시다

환절기의 알레르기성 비염

黃敬植(63년 文理大卒)한의원 원장



요즘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만성병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중요한 증상은 재채기, 콧물 그리고 코막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응접실로 나가고, 창문을 열고 또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찬 공기를 쏘이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비염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채기를 한꺼번에 십여번 또는 그 이상씩 하게 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머리도 멍해질 정도가 된다. 콧물도 마치 수도꼭지를 막아놓은 것처럼 설사 없이 나온다. 또한 코가 막혀 답답해서 풀려보지만 역시 시원하지 않으므로 풀고 또 풀고를 계속한다. 밤에 잘때도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면서 자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코와 연결된 눈, 귀 그리고 입천장 등이 가렵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치료할 때 코를 치료하지 않고 폐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염의 증상들이 모두 코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코 자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다. 그러나 전후 좌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코구멍을 지나고 기관지를 지나면서 너무 차거나 탁한 공기는 따뜻하고 정화된 공기로 바뀐 다음에야 폐에서 흡수가

되도록 우리의 호흡기계통은 아주 빈틈없이 만들어져 있다. 한편 우리들은 어쩌다가 몸이 차질 때 느닷없이 재채기를 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은 폐가 차지면서 그 영향이 바로 코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코와 폐의 종속관계를 한의학 용어로는 肺主鼻라고 한다. 폐가 코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로써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코라는 기관은 폐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기관이란 뜻이다.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코를 주관하고 있는 중요 장기인 폐를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방법인 것이다. 폐가 튼튼해지면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되고 오염된 공기, 집먼지 그리고 꽃가루 등에도 끄덕하지 않게 된다.

에어콘, 선풍기, 수영 그리고 찬 음료수 등은 한의학적으로 폐를 차게 하기 때문에 절대 삼가야 한다. (황경식한의원 : 413-1358)

추억의窓

용두동 「청량대」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남학생 모자빌려 배지달고 첫 극장출입

金順五(59년 師大 家政教育科卒)경기여고 교장

1955년 4월 대학에 입학했다. 내가 다니던 사범대학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주로 전차로 통학했다. 용두동 전차 정류장에서 내려 다리 하나를 건너면 교문에 다다른다. 교문 양옆에 늘어선 개나리길을 한참 걸으면 붉은 벽돌의 3층 교사가 젊은 우리를 언제나 반겼다.

사범대학 용두동캠퍼스...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진 모교의 자취가 못내 그립다. 무지개빛 청춘의 꿈이 사라진 것 못지 않게 모교를 잃은 쓸쓸함이 대학생살을 회상할 때마다 아쉽게 떠오른다.

강의실 뒤편에는 청량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청량대는 나지막하고 아담한 동산이었다. 그 당시 사범대학을 다닌 동문들에게는 용두동캠퍼스와 청량대는 잊을 수 없는 회상의 옛동산 이리라. 시간만 나면 우리는 친구들과 곧잘 청량대에 올랐다.

40여년이 흐른 지금, 청량대 그 빛바랜 회상의 동산으로 잠시 떠나보련다.

입학식 다음날쯤으로 기억된다. 새로 해입은 대학생의 복장을 하고 학교에 가서 교표를 구입하는 일인가 잘 기억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일이 있었다. 새 학기 강의가 아직 시작전이라 캠퍼스는 고요했다.

학교 모자를 가져오도록 된 것을 창구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교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내일 집에 있는 모자를 가져와서 받도록 하고 친구 R과 나는 지나는 길에 보이는 청량대로 무심히 발길을 옮겼다. 그 날은 흐려 있었고 간간이 실비갈기도 한 것이 내리는 듯 마는 듯한 날씨였다. 청량대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만치 벤치가 보였다.

그 벤치에는 우리처럼 신입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예의 그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 누워 명상에 잠겨 있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보게된 그 모습이 무척 낭만적으로 보였던지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 모자를 잠시 빌려보기로 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내성적이고 수줍은 편인 R과 나에게는 남에게 먼저 말을 부친다거나 더구나 부탁하는 일은 엄두도 못내는 일이었는데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꽤히 모자를 빌려주었고 우리는 학생회실인가 하는 곳에 가서 배지를 구입하고 수분후 물론 모자를 돌려주었다. R과 나는 그 배지를 달고 고교내내 금지구역이던 극장에 갔었던 것 같다. 그때 한참 극장가에서는 「사부리나」, 「돌아오지 않는 강」 등의 간판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었다.

이렇게 입학 첫날부터 인연을 맺은 청량대는 나에게 늘 회상의 동산이다. 여기 사진은 청량대로 오르는 계단위 벗어나 아래서 1학년때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다.



좌로부터 李順周, 鄭升教, 李正律, 필자.



평민이 된 옛 귀족의 자기반성

金春玉(72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

교수가 된지 불과 반년. 나는 지금 이 직업에 관해 신선한(?) 체험을 쌓고 있는 중이다. 내 전직은 언론인. 평생 언론인으로 살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교수가 됐다. 그런데 언론사를 떠나 언론학 교수가 되고나서 언론 보는 눈이 너무도 달라졌다. 나하고 꼭 같은 입장에 있는 언론인 출신 교수들도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귀족에서 평민이 된 것 같다면서,

대접받고 목에 힘주던 기자

언론사 사무실, 출입처(대부분이 입법, 사법, 행정부 소속이다), 끝없이 나타나는 취재대상지역, 취재 대상자들. 사무실에 나갔다가 회사마크가 새겨진 차량을 타고 취재가고, 돌아와서 기사쓰고,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사관련 청탁 전화받고, 기사가 나가고 나면 대접하겠다는 초청을 받고는 선별해서 수락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반경」이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는 대한민국을 다 보고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내가 가장 최근 몸 담았던 시사저널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큰 언론사에서 춘지는 금기다. 그러나 취재를 간 기자 앞에서 사람들은 긴장한다. 그들은 열심히 설명하고 부탁도 한다. 목에 힘이 들어 가게끔 사람들이 만들어 준다. 그러나 매일 매일, 매주 매주, 기자들은 「민의를 대변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한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공명심과 사명감, 그 잣대에 모든 판단을 맞췄다고 믿고 있다. 나도 그러고 보니 참 아는 것도 많아졌다.

지금 나의 물리적인 활동 영역은 집과 학교다. 내 차를 몰기도 하고, 버스

나 지하철도 탄다. 강의가 없을 때는 한 낮에 공원을 걷기도 하고 시장도 기웃거



린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한참 일할 시간에 이런 곳에서 얼쩡 거리나』라고 생각했던 대상들 속에 지금은 내가 포함돼 있다.

퇴출대상 1호 왜 옹호하나

실업자처럼 다니다보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회의 구석 구석을 「진짜로」 알게 된다. 거리에서 나누었던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와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많다. 정치인들은 퇴출대상 1호라면서 왜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저리도 옹호하는지. 기사나 칼럼이나 사실을 읽다가 의심이 갈 때도 있다. 그 신문사(또는 사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라는... 내가, 우리가 언론인이었을 때도 소속회사(또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루 빨리 익숙해져야 유능한 언론인이 되는 줄만 알았던 그 언론의 관행이라는 것의 폐해... 우리는 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사회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중학교 교지 만들 때부터 시작한 나의 언론인 생활. 그러나 나의 언론학 교수 생활은 지나간 그 생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진짜 생생한 내용 빠졌던데요”

權台仙(78년 師大卒)한겨레신문 국제부장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에 관한 보고서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후 그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받아든 몇몇 남자 후배들이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권선배, 우리 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 너무 재미없어요. 진짜 생생한 내용은 다 빠졌던데요』

클린턴 성추문 지나친 보도

이른바 탄핵보고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20대의 「정신나간」 여성간의 성적 접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실지 않았음을 지적한 말이다. 실제로 다른 많은 신문들은 보고서의 내용 중 성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지면에 옮겼다. 「백악관 집무실서 색다른 접촉」 등 다시 옮겨쓰기도 낯뜨거운 제목을 단 포르노를 방불케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유수한 언론들의 중심지면을 장식했다.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는 백악관 집무실의 지도까지 「천절하게」 덧붙인 신문도 있었다.

보고서의 인터넷 공개를 결정한 미국 하원의 뉴트 킹그리치 의장은 성이란 말이 5천번이상 등장하는 「구역질나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이런 보고서 내용을 알고 싶었을까? 보고서 공개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킹그리치의 설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 인터넷 공개를 지나친 일로 평가했고 더 이상 성추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클린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이 「지겹고 입맛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루는 한국 언론의 태도는 미국 언론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클린턴의 탄핵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은 그가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의 권력위기는 국제정치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되는 북·미 핵합의의 유지나 북한의 위성발사에서 확인된 미사일 능력을 국제적인 틀속에서 규제하는 일이라든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만 해도 클린턴의 지도력이 약화될 경우 진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클린턴 위기와 관련한 우리의 관심은 그가 어떤 성관계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의 탄핵위기가 미국 정치, 나아가 세계정치경제에 끼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보다 세계정치에 관심을

『오늘 신문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보이게 할 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경고까지 넣으면서 「폰섹스」, 「오럴섹스」 등의 표현으로 가득 찬 내용을 담은 것은 후배들의 농담속에 남겨진 속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과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미래 산업의 꽃...기술과 경영으로 승부하자

80년대 신기술금융회사의 등장과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벤처기업은 최근 자본시장의 위축과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과정을 겪으면서도 계속 성장하여 이제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고유의 첨단 기술을 개발, 사업화에 성공했거나 또는 사업화 과정 중에 있는 많은 동문 벤처기업가들이 오늘도 제2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갈고 닦고 있다.

이에 本報에서는 벤처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9월 15일 모교 신기술창업네트워크에서 벤처기업협회 李珉和회장과 한새벤처투자(주) 延炳善사장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 9명을 초청, 우리 벤처기업 환경과 창업 사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대담 : 李世震편집주간



참 석 자

- 피알티코리아 金仁起(63년 工大卒) 회장
- 벤처기업협회 李珉和(76년 工大卒) 회장(메디슨 회장)
- 한새벤처투자(주) 延炳善(76년 工大卒) 사장
- 마리텔레콤 張仁敬(77년 工大卒) 사장
- 인터넥스 洪京煥(81년 自然大卒) 사장
- 유진사이언스 盧承權(83년 自然大卒) 사장
- 블루넷 張濬鎭(86년 師大卒) 사장
- 성진씨앤씨 林炳辰(88년 工大卒) 사장
- 웹콜 金泰燁(95년 農生大卒) 사장

수의 돈을 투자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IMF로 대부분 결렬되어 기술이전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봄에 미국에서 만난 데이 터페이스 부사장이 펀드레이징을 맡아주기로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현지 에 마케팅회사를 차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張濬鎭 : 처음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을때 하나의 신천지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펼치며,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돼 지난 96년 2월 「블루넷」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제작, 특히 디스플레이측면에서 활동을 하다가 96년 10월 기업은행 인터넷홈킹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가지 솔루션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됐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국내 최초로 인터

통해 동문 상호간에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사 회 :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천여개에 이르며, 앞으로 2005년에는 4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벤처협회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각 투자기관, 정부 시책의 대응 등 앞으로 벤처기업 협회의 책무와 위상은 날로 높아가리라 예상됩니다. 벤처기업협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李珉和 : 벤처기업협회는 기업들의 정보·기술의 교환과 친목·유대의 결속을 통해 잠재 에너지의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업계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벤처기술업계의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조직화하는 중심체가 되고자 결성됐습니다.

협회에서는 앞으로 21세기 산업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벤처유통시장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코스닥 및 M&A의 도입과 활성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스닥 및 M&A는 개인과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자본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의 효율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파는 것을 도덕적으로 죄악시하는 풍조가 짙어 경쟁력이 떨어진 회사를 끝까지 경영하려다 관련 업체

사 회 : 최근 2~3년간 급속한 성장을 기록한 벤처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시게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起 :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30년 이상을 일해 오면서 교통문제를 다루다보니 현재 쓰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량 수송을 목적으로한 과도한 시설 투자 등은 기존 지하철 사업의 적자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피알티코리아 金仁起회장

경전철 사업을 PRT로 대체,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약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張仁敬 : 국내 인터넷 1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를 통하여 관심밖

압축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성진씨앤씨」를 창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품과 호환이 될 필요성이 전혀 없고, 기존 PC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영상압축기술보다 하드웨어를 적어도 1/4내지 1/5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미국에 아이디어만으로 55만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주문형 반도체로 제작해 국내 시장에서 내년까지 3만개의 주문예약을 받아



벤처기업협회 李珉和회장
농았습니다.

洪京煥 : 저는 CAD/CAM과 관련된 일을 7년간 해오면서 S/W 개발측면의 국내 낙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외국산 S/W를 고가에 구입,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PCB (인쇄회로기관)설계를 주로 하는 「인터넥스」를 지난 94년 2월 창업했습니다. 현재 50명의 직원들과 PCB제조용 CAM software개발 및 판매와 인터넷 관련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泰燁 : 저는 주로 인터넷폰의 개발에 주력하여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모교 「신기술창업네트워크」에 입주해 지난 7월 「웹콜」을 창업했습니다. 처음 펀드레이징할 때는 많은 액

金仁起회장

「케도 승용차」 국내 실용화 눈 앞에

李珉和회장

스톡옵션제 확산·M&A 활성화돼야

延炳善사장

1천만불규모 투자조합 결성 준비

張仁敬사장

창조성 발휘할 자유공간 시급하다

PRT(케도 승용차)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왔습니다. PRT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1/3로 낮추고, 역간 거리를 2백미터로 가깝게 하고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주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률과 편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PRT KOREA」를 설립하여 그동안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해 한국 및 미국, 러시아,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PRT 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레이선社와 기술 제휴, 국내에서도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에 있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지난 94년 7월 1일 게임소프트 개발업체인 「마리텔레콤」을 설립했습니다. 과학원의 90, 91학번의 인터넷 1세대들을 주축으로한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머드 엔진으로 RPG(롤플레이팅게임)형의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 「단군의 땅」으로 국내 PC통신업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林炳辰 : 저는 창업초기부터 MS나 인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 표준화가 필요없는 보안감시용 영상



한새벤처투자 延炳善사장

넷 사이트 개발과 제작을 주관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인터넷사이트는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벤처산업분야이며, 우리도 이제는 단순히 디자인측면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서울대총동창회의 인터넷 사이트가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10월 중에 개통 하려고 합니다. 이를



마리텔레콤 張仁敬사장

다
기
기
업
포
럼
Meet
만
남

및 경영자의 친인척까지도 함께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업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벤처기업이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 및 경영인력 보상체제의 혁신을 통한 주인의식의 고취를 위해 스톡옵션제도

연구개발의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목표설정 능력이 떨어져 R&D의 총체적인 경쟁력에서 미국에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설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비즈니스윈도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가서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비교우위가

는 첨가제를 개발해 지난 97년 7월 「유진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창업했습니다. 처음 기술을 개발할 당시 매출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생산기술연구원에 TBI(창업보육센터)업체로 신청해 자금지원을 일부 받았으며, 모교 창업네트워크센터에 입주하여 도서관의 자료나 고가의 실험장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張仁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요가 무엇인지, 또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서 기회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 창업준비단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벤처산업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내의 자유공간 마련도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모교가 나서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마련한다면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상징적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체가 모여있고 5대 방송망이 있는 여의도 안



블루넷 張濤鎮사장

에 멀티미디어시티를 건설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洪京煥: 창업보다는 창업 후에 회사의 경영이나 운영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대개 창업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모든 것을 기술위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점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회사운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문들이 있다면 창업 자체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그 후의 일에 대해 자기 자신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張濤鎮: 누구나 창업 후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 초기에는 직원들과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벤처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몇몇의 지인들이 모여 창업을 하고 회사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신규 사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원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

의 복지 시스템을 형성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정예인원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이라도 차별화된 조직관리와 품질관리를 이룰 수 없다면 쉽게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사 회: 특히 창업 준비기에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벤처캐피털 및 비즈니스 엔젤(개인투자자)들에게 지원 받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延炳善: 벤처캐피털은 대부분 단기간 내에(창업의 경우라도 가급적 5년내) 코스닥에 등록이 가능한 업체를 투자 대



유진사이언스 盧承權사장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매출액 1백억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이상인 기업이어야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때, 이 이상의 시장 규모와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기업화 단계에서의 영업·관리·자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장 벤처캐피털과 접촉하기 어렵다면 엔젤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의 선배나 친척 중에 성공한 기업가가 있다면 가장 좋은 엔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우면 「무한기술투자」, 「전기전자 엔지니어클럽」 등에서 엔젤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벤처 컨설팅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국내 경제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벤처캐피털의 자금조성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엔젤의 투자도 소강 상태입니다. 단지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 부문의 창업보육센터만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내 경기의 회복 전망이 보인다면 외국인의 벤처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터넵스 洪京煥사장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국내 벤처 투자의 최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 회사의 재원중 50% 이상을 투자할 생각이며,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1천만불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사 회: 벤처기업은 경영자적 측면에서 기존의 기업과는 달리 개혁적·창조적·개성적 전 문경영을 필요로 합니다. 벤처 창업을 하려는 동문들이 가져야 할 기업 정신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金仁起: 벤처산업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업가로서 기존의 잘못된 제도나 사회적 변동에 도전하고 모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에 대해 예견력과 창조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가장 적합하리라 봅니다.

盧承權: 큰 조직이 주는 안락함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직을 만들어 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조직은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작은 집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洪京煥: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변화에 대한 열의를 갖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회사 전체가 항상 변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金泰燁: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했거나 준비중인 동기나 후배들을 보면 대부분 안주하려는 태성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및 인터넷사이트(E-mail)

- 피알티코리아 3451-6803
- 벤처기업협회 562-5914,5(www.kova.co.kr)
- 한새벤처투자 421-1057(www.hansae.co.kr)
- 마리티텔레콤 572-4295(archmage.maritel.com)
- 인터넵스 538-7131(www.internex.co.kr)
- 유진사이언스 338-6283(eugeneq@unitel.co.kr)
- 블루넷 953-0114(www.blunet.co.kr)
- 성진씨앤씨 525-7720(www.sjnc.com)
- 웹콜 873-4737(kty@selab.snu.ac.kr)

洪京煥사장

인쇄회로기판으로 세계시장 도전

盧承權사장

우유속 콜레스테롤 제거기술 개발

張濤鎮사장

인터넷사이트 개발 연구 설립에 주력

林炳辰사장

표준없는 「틈새시장」 공략이 최고

金泰燁사장

「인터넷폰」 기술로 정부지원 받아

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톡옵션제도는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었던 과거의 종업원 지주제와는 다르게 지금의 가격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미래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1실험실 1창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처 창업을 70%가 대기업내에서, 나머지 30%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인력의 70%가 몰려 있는 곳이 연구기관이며, 우리나라에는 1만2천개의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실 창업은 인력과 자본·기술의 활용면에서 대단한 상승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2만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벤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망한 전략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양적 생산에, 중국은 지식과 관련된 생산에 약점을 갖고 있으니, 지식에 기반을 둔 생산이 우리의 전략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PCS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피시를 중국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미국은 이것을 생산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식을 중점에 둔 생산분야를 전략분야로 키운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벤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막대한

사라지게 됩니다. R&D는 한국에서 하고 R&D디렉션은 미국 비즈니스윈도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서울대창업네트워크 등과 연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각 연구단체 및 정부·벤처와 관계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 회: 아이템 선정 및 조직과 자금에 대한 창업 설계 등 하나의 벤처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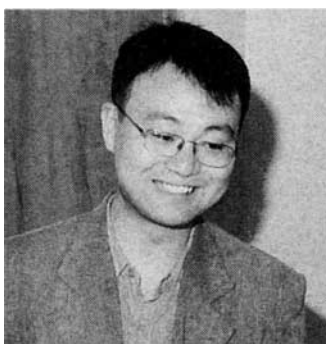
林炳辰: 남이 안하는 틈새시장을 찾아 아이디어를 가미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표준이 없는 것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진씨앤씨 林炳辰사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동문들이 해외시장 여건 파악이라든지 편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다면 IMF속에서도 자금 및 기술조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盧承權: 기술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상업화 경력을 쌓아 마케팅 감각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연구원 9명이 우유에서 콜레스테롤만 선택적으로 제거해내는 기술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의 침투를 막



웹콜 金泰燁사장

「소사」정책개발연구원 玄鏡柄원장

동문
화제의
Talk

인터넷속 우리나라 홍보의 선두주자

“「한국학 지구 네트워크」 접속하면 한국이 보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우리 것에 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玄鏡柄(87년 行大院卒·소사정책개발연구원장)동문.

玄동문은 『한국·한민족의 역사나 문화 등 한국에 대해 알려고 하면 찾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시공을 초월하여 언

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 유통로 사이버 공간에 한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담게 됐다』고 말했다.

모교 재학시절부터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玄동문은 처음엔 그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재학시절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서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玄동문은 확고한 신념으로 93년 사표를 내고 현재의 일에 뛰어 들게 됐다.

그만돌 당시 집안의 만류는 실로 대단했다. 그러나 玄동문은 집안의 만류에 대해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돌연 잠적하기도 했다. 그의 굳은 결심을 결코 굽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玄동문의 퇴사가 결정되는 데만도 회사내에서 3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그만큼 그의 재능과 능력을 모두 아까워했기 때문이다.

그후 玄동문은 95년 2월 「소중한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소사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했다. 소사정책개발연구원의 설립에 대해 玄동문은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이를 역사와 문화에 접목시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98년 4월말에 구축한 「한국학 지구 네트워크」(<http://www.hahnnet.org>) 또한 소사정책개발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玄동문은 『「한국학 지구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한민족·한국사·한글 등 한국학 관련 2백39개의 웹사이트와 1백41개의 웹문서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관광이나 여행시 정보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얻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한국의 자료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한국을 만드는 것이 또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학 지구 네트워크」는 접속 횟수만도 벌써 47만회를 돌파했으며, 앞으로 심마니와 야후에 버금가는 「한국 검색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玄동문은 현재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판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숙박업소·관광 지도 등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구축중인 「해외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는 벌써부터 각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玄동문은 역사와 관련된 시민·문화단체인 「아우라지」의 이사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어울린다」라는 뜻의 우리말인 「아우라지」는 정회원만도 1천명을 웃돌고 있다.

玄동문은 『정확한 정보와 뜻깊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묻혀있는 자료들을 발굴하여 살린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다만 현재 시간과 비용면에서 다소 열악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다.

현재 玄동문은 부인 申潤珠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연락처: 586-1034) (信)



②7일진

세계 3대 「공업용 다이아몬드」 메이커로 각광

26억 들어 모교에 「신소재 공동연구소」건립 기증

국내 경제난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센 파고속에서도 오히려 공격적 경영으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지난 1967년 창업 이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으로 매출액 5천억원을 상회하며 내실 있는 중견기업으로 급부상한 (주)日進.

일진(회장 許鎭奎·63년 工大卒)이 이렇듯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까지 생산한 4백여 품목중 90%이상을 자체기술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진이 기술로 일어난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진은 오직 기술로 승부해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즉 국산화나 수입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위주로 자체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 바로 이러한 사업운영이 현재의 일진을 탄탄하고 알찬 기업으로 남게 한 요인이다.

기초산업분야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한 일진은 최근 신소재, 첨단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94년 다국적 기업과의 영업비밀 분쟁으로 국내외 언론에 「산업



許鎭奎 회장

계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까지 비견되는 유명한 사례를 남겼던 일진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당시 매출액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를 투자, 장장 5년간에 걸쳐 개발했던 품목이다. 이는 許회장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고집을 잘 보여주는 일면중의 하나다.

특히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장치산업으로 대기업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품목이다. 그러나 許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개발에 착수, 현재 일진의 세계적인 생산품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으며,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남아공의 드비어스사와 더불어 공업용 다이아몬드 세계 3대 메이커로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일진은 이른바 종합정보통신망

(ISDN)의 지능망서비스를 위한 신호중계교환기(SMX-1), 신호중계교환기와 지능망을 연결하는 신호중단교환기(CMP) 및 가상사설망서비스(VPN) 등의 개발을 통해 종합통신망 구현을 위한 첨단의 기술력 진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진이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창업 이후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에 있어서도 일진은 다른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은 선진 기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석·박사 지원제도」, 「산학장학생 지원제도」, 「한길인 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중 「한길인 제도」는 일진에 장기간 근무했던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시 평생동안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복지제도로서 호응도가 매우 높아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일진의 기술 및 인재양성에 쏟는 투자는 이미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지난 90년에는 한해 이윤의 절반이 넘는 26억을 모교에 출연, 「신소재공동연구소」를 설립 기증한 바 있다.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등 입체적인 회사정책을 펴고 있는 許회장은 『하나의 기업이 국가경제에 올바르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재와 기술이 균형을 이루어, 보유한 자원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기술 한국」의 고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는 일진은 2천년대 재계에 무서운 돌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信)



마포 본사 전경

서울대 출신들을 홍보 때

「역시 우수하다」,

「독불장군들이다」,

「부러먹기 딱 좋은 타입」

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서울대가 해야 할 일

첫째 : 캠퍼스를 창의의

요람으로 만들자.

둘째 : 교수임용에서

과감한 개방과

경쟁도입이다.

셋째 : 대학원중심대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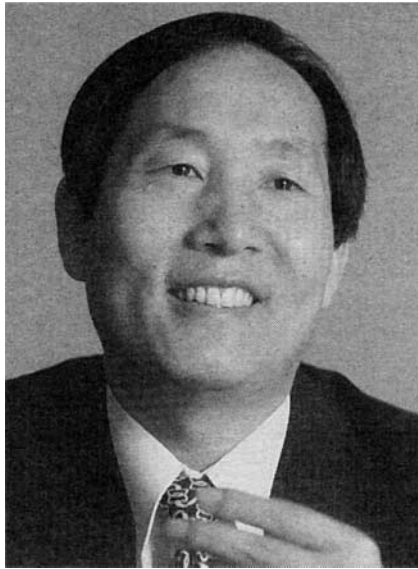
과감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 총장은 고매한

인격자나 석학보다

경영자여야 한다.



서울대 출신들을 홍보 때 단골메뉴처럼 꼽히는 세가지가 있다.

「역시 우수하다」가 첫째다. 「독불장군들이다」가 둘째다. 기본은 언짢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속성 정도도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세 번째가 좀 고약하다. 사회에서 「부러먹기 딱 좋은 타입」이라는 것이다. 창의와 리더십으로 뭘 주도해가기보다는, 주어진 틀에 맞추어 위사람들의 결정을 뒷받치거나 합리화를 잘하는 재주꾼들이라는 비아냥이다. 「전국의 수재들을 뽑아다가 4년 뒤 바보로 만들어 내보내는 곳이 서울대」라는 극언도 있다.

거대한 「고시학관」 취급받아

중앙일보의 「98년도 전국대학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인성과 품성에 관한 사회평판도에서 서울대 출신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출신보다 훨씬 뒤져있다. 「발전가능성」에서도 이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자랑이어야 할 서울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전공에 아랑곳없이 서울대가 「거대한 고시학관」으로 변해간다는 뉴스 보도들에 그저 기가 찰 뿐이다.

미국 대학가에 「아시안 조」(Asian Joe)라는 은어가 유행한다. 「조」는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의 하나다. 수학·과학 문제 잘 풀고, 시험 잘 봐 학점은 좋지

특별기고

서울대는 거듭나야 한다

卞相根(69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

만 영어를 못해 대화나 토론을 기피하고, 독창성이 부족하고, 사회성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머저리 아시아 공부벌레」들을 홍보는 말이다. 「서울대 타입」의 영향없는 국제판이다.

아이디어맨·재주꾼 있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기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교육, 특히 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어느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7백 위권에 랭크된 적도 있다. 홍콩의 주간지 아시아위크 97년도 평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아시아대학들 가운데 16위였다. 경쟁력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교수진 자질에서 서울대는 17위로 고려대(9위)와 연세대(16위)보다 뒤져있다. 일본과 호주는 물론이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의 우수대학보다 평가가 크게 떨어진다. 공교롭게도 국가경쟁력 순위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

대학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leader)를 길러내는 곳이다. 우수한 젊은 인재를 미국에선 「best young minds」로 부른다. 우리식의 수재나 공부벌레와는 다르다. 창의력에도 각 분야에서 남다른 자질과 재능 및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이다. 성적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재능과 특성이 더 중시된다. 공부벌레들만 모아놓을 경우 캠퍼스는 파분하기 짝이 없다. 기발한 아이디어맨과 다양한 재주꾼들이 어울려야 캠퍼스는 살아움직인다. 리더의 소양과 「그릇」을 다듬는 道場이자 창의와 혁신의 센터가 바로 대학이다.

서울대가 앞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

은 캠퍼스를 이 창의의 요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신입생 선발방식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공부벌레들은 아주 특출난 경우에 한해 일정비율만 뽑고 나머지는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망생들 가운데 자질과 재능, 특성과 특기위주로 다양하게 선발한다. 각 분야 「한국의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교수임용에서 과감한 개방과 경쟁도입이다. 「연구논문을 내지 못하면 사라져라」(publish or perish)를 철칙으로 삼고 학생들의 교수평가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교수들이 연구에 몰두하도록 제도로 「들들 볶고」 외부스카우트 등 경쟁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개방 및 경쟁체제에서 가장 뒤져있는 곳이 우리의 대학들이다.

연구논문 못내면 사라져라

셋째,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창의와 혁신,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대학원의 몫이다. 학부교육에서 전공의 「칸막이」를 없애고 學際간 연구분위기를 최대한 조장한다. 미국 학부생들 가운데 로스쿨과 메디컬스쿨을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대학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다. 그 총장은 고매한 인격자나 「석학」보다는 경영자여야 한다. 경영안목과 국제 감각을 지닌 젊고 정력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우수 교수요원과 연구용역을 다투어 유치하고 국제교류의 질과 폭을 넓혀 「세계속의 서울대」를 지향하는 비전과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서울대가 살아야 이 나라도 산다.

동정

수상

▲禹在昇(55년 法大卒·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최근 방콕에서 열린 98년도 세계대회에서 「세계자유평화상」을 수상함.
▲安哲秀(86년 醫大卒·컴퓨터 바이러스연구소 대표)=지난 9월 16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제

정한 제7회 「茶山 기술상」대상을 수상함.
▲金載衡(97년 音大卒·성악가)=지난 9월 12일 제48회 뮌헨 ARD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함.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장)=지난 9월 17일 웨스턴조선폰에서 열린 고려대 경영대 및 경영대학원 행사에서 「고려경영포럼 대상」을 수상함.
▲元大淵(44기 AMP·제일모직대표)=지난 9월 9일 한국패션협회가 주관하는 「98 서울패션인상」수상자에 선정됐으며, 시

상식은 11월 6일 패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임.

이동·선임

▲楊淳植(49년 師大卒·前자민련 상임교문)=지난 7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정기총회에서 제7대 총재에 선출됨.
▲邊衡尹(51년 商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전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에 선임됨.
▲全武植(54년 文理大卒·KAI-ST 명예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2대 원장에 선출됨.

▲張明洙(56년 工大卒·전북대 총장)=최근 전주 우석대 제7대 총장에 선임됨.
▲崔鍾洙(56년 文理大卒·前광주대 언론대학원장)=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선임됨.
▲鄭東華(57년 師大卒·前인천교육대 총장)=지난 9월 1일 인천교육대 명예교수로 위촉됨.
▲李璣教(59년 師大卒·한국방송대 교수)=지난 9월 29일 한국방송대 제3대 총장에 취임함.

▲金魯重(60년 師大卒)=지난 9월 1일 전북 정읍시 정산중학교 교장에 선임됨.
▲申鐵淳(61년 師大卒·전북대 교수)=지난 9월 1일 전북대 총장에 취임함.

▲李相淇(61년 商大卒·인터컨티넨탈서울 사장)=지난 7월 21일 한국관광호텔협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朴敬緒(62년 工大卒·前아주대 교수)=지난 9월 1일 거제대 제4대 학장에 선임됨.

▲元喆喜(62년 法大卒·농협중앙회장)=지난 9월 14일 98년도 제2차 농수축임협 중앙협의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됨.

▲李正仁(63년 工大卒·모교 교수)=지난 8월 28일 모교 첫 석좌교수로 선정돼 SK텔레콤이 출연한 기금 4억원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게 됨.

▲李清洙(63년 文理大卒·前KBS 워싱턴 총국장)=최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에 임명됨.
▲朴榮一(63년 商大卒·정보통신부 관리관)=지난 9월 3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에 선임됨.

▲孫吉丞(63년 商大卒·SK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됨.

▲金鎮植(64년 文理大卒)=최근 인천교육대 도서관장에 선임됨.
▲琴承鎬(64년 師大卒·前대통령 사회복지교육비서관)=지난 7월 7일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선임됨.

▲鄭鍾旭(65년 文理大卒·前주중대사)=최근 아주대학교 석좌교수로 위촉됨.

▲趙容直(65년 文理大卒·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지난 9월 12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許信行(66년 農大卒·前소비자보호원 원장)=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됨.

▲李範益(68년 工大卒·남광토건 부사장)=최근 남광토건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鍾澈(68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지난 6월 30일 연합통신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부회장·冠岳會理事)=최근 한국공기업학회 제4대 회장에 선임됨.

(13면에 계속)

제43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서울대인이 모두 휩쓸어



韓 莖 淑



金 鎮 福



朴 相 大



愼 鏞 廈



李 賢 九

대한민국 학술원(원장 李賢宰)은 지난 9월 17일 제43회 학술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인문·사회과학부문에 韓莖淑(49년 文理大 哲學科卒·모교 명예교수)호원대 교수·愼鏞廈(61년 文理大 社會學科卒)모교 교수, 자연과학부문에 지난 8월 31일 모교에서 정년퇴임

한 金鎮福(58년 醫大卒)서울백병원 위암센터소장을 비롯해 朴相大(60년 文理大 動物學科卒)모교 교수, 李賢九(62년 工大 化學工學科卒)모교 교수 등 5명이다. 수상자는 모두 서울대인으로 이날 상장과 휘장 및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變)

호지킨病 원인 세계 첫 규명

모교 의대 朴聖會교수팀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호지킨病的 원인이 朴聖會(75년 醫大卒·모교 교수)동문의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호지킨병은 1832년 영국 의사인 호지킨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을 모른채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를 해왔다. 특히 이 병은 전체 암의 1% 정도를 점유하는 악성 림프종으로 인구 10만명당 3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동문팀은 호지킨병 환자 30여명의 림프구를 이용, 수



년간의 연구결과 정상세포 표면에 있어야 할 단백질(CD99)이 이들 환자에게서 없어지거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朴동문팀의 연구결과는 세계적 혈액학 잡지 「Blood」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信)

(12면에 이어)

▲丁海旺(69년 商大卒·금융연구원 부원장)=지난 7월 8일 금융연구원장에 선임됨.

▲張明國(70년 商大卒·내일신문 운영위원장)=최근 케이블 보도채널 YTN 사장에 선임됨.

▲鄭雲燦(70년 商大卒·모교 교수)=지난 9월 3일 한국 금융학회 회장에 선임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지방행정연구수원장)=지난 6월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김.

▲宋寅騎(71년 商大卒·동부화재 개인영업부문 부사장)=지난 7월 9일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산업정책연구원장)=최근 아시아권 대학교수로써 최초로 국제경영학회(AIB) 부회장에 선임됨.

▲車聖漢(72년 工大卒·前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조정실장)=최근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교통사고감정연구원장에 선임됨.

▲李秀永(72년 法大卒·前통령비서실 상황실장)=지난 6월 30일 교통개발연구원장에 선임됨.

▲金孝錫(72년 商大卒·중앙대 경영대학장)=지난 7월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사회에 선임 원장



에 선임됨.
▲崔鍾燦(72년 商大卒·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지난 9월 17일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됨.

▲崔忠玉(75년 師大卒·경기대학교 교수)=지난 6월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에 선임됨.



▲趙恒原(76년 商大卒·前동방페레그린투자자산탁운용 상무이사)=최근 대성 미생물연구소 사장에 선임됨.

▲李炳雲(32기 AMP·前물가신문 사장)=지난 7월 28일 한국물가협회 회장에 취임함.



▲鄭貴來(39기 AMP·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장)=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 통상정보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貞淑(27기 ACAD·국회의원)=지난 8월 17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24일 하얏트 호텔에서 제 7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閔丙駿(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

난 9월 14일 99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광고주연맹(WFA)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해 출국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지난 9월 12일 해양수산부 전·현직 직원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尹鍾赫(57년 文理大卒·前홍익대 교수)=지난 8월 19일 슬로바키아 부라티스라바市에서 열린 제 18차 세계시민대회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음.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국제협력단 부총재)=지난 9월 16일 국제특허연구원에서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강연함.



▲金相榮(65년 行大院卒·전자신문 사장)=지난 9월 10일 청와대에서 전자신문 창간 16주년을 기념하여 金大中대통령과 주요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에 관한 要談을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8월 28일 강북대성학원 소강당에서 제12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金鍵相(69년 醫大卒·중앙대 의료원장)=지난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중국 질강의과대학을 방문, 자매결연식을 가짐.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천장학회 이사장)=지난 9월 1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변대학교에서 양천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金春玉(72년 文理大卒·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단국대 교수)=지난 8월 25일 정보보호센터 강당에서 열린 PC통신 취미 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기통신회선상의 음란물 심의기준 세칙」에 관해 주제 발표함.



▲金泰賢(81년 人文大卒·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장)=지난 9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0년을 여는 젊은 작가 포럼」에 참석, 「민족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강연함.



▲申承南(82년 法大卒·변호사)=최근 美콜롬비아·부르클린 법대 및 뉴욕테크 전자공학과정을 마치고 귀국,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작함.(전화: 589-0009)



▲安惠鮮(89년 音大卒·이화여대 강사)=지난 9월 18일, 25일 서울 쇼팽홀과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소나타 등을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辛堇植(92년 美大卒·선화예고 강사)=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종로 경인미술관에서 「山寺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짐.



▲金大煥(93년 音大卒)=지난 10월 1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裕恩(92년 音大卒)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짐.

▲金明圭(24기 AMP·국회의원)=최근 美캘리포니아 유니온대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함.

(정리=李美連 기자)

“학문적 접근으로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방향 제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李元馥회장



지난 9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초대 회장에 선임된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대 교수·本報 論說委員)동문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은.

『경험이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은.

『출판만화를 기반으로 산학연계 및 산업진흥을 위해 1996년 6월 한국만화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지난 5월 애니메이션 분야를 포함해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회원으로는 현재 4개 대학교(4년제)를 비롯 전국 16개 대학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관련분야 전문가들 약 1백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화를 시작하게된 동기는.

『고등학교 1학년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것이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인간의 꿈과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펼칠 수 있는 만화는 모든 문명의 이기와 발명품, 심지어 첨단 과학의 발달도 만화적인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인간 상상력의 첫 스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본 만화산업의 경우 양적으로는 세계 제일이지만 학문적인 접근과 제도가 전무하여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학회는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방향제시로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薄利多賣의 저질, 저가품을 생산해서는 안되며, 고품질 작품으로 미국, 일본과 경쟁하는 것만이 21세기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살길이라 봅니다』

(美)

행사·출간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24일 하얏트 호텔에서 제 7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閔丙駿(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



한국전력공사 張榮植사장

“남북한 전력통합 운영이 고용 창출의 활로”

지난 5월 18일 한국전력 사장에 취임한 張榮植(55년工大卒)동문을 만나 향후 전력사업 구상과 남북한 전력교류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사장공모제를 통해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과 사장부임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을 연구해온 에너지분야에 대해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한전이 「양질의 전기를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개혁작업을 이끌 생각입니다』

—張사장님께서서는 오랜기간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경력이나 주요 연구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55년 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후 張勉총리의 경제비서관으로 있다가 5·16이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후 69년에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근무중 지난 봄 한전 사장공모에 응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계와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습다. 지난 70년대 후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내 에너지정책 등의 연구책임자로 있었고 특히 77년에는 전기요금제도 개편책임자로 참여하여 산업용 시차제요금제를 만들기도 하는 등

한전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기에 회사 경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전은 국내 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외형뿐 아니라 실제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한전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가치로 보나 예산규모로 보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사중 하나

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주시지요.

『저는 지난 92년 「북한의 에너지경제」라는 저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한전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 것이죠. 그렇기에 사장부임 즉시 구체적 계획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전에서는 전력망을 북한과 연계 하되 단기적으로는 여유전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고효율·저가격 경영체제 확립 신입사원 20% 여성인력 활용

입니다. 국민의 이익과 기업이 이익이 서로 배치되어서도 안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IMF체제 극복에도 앞장서야 할 입장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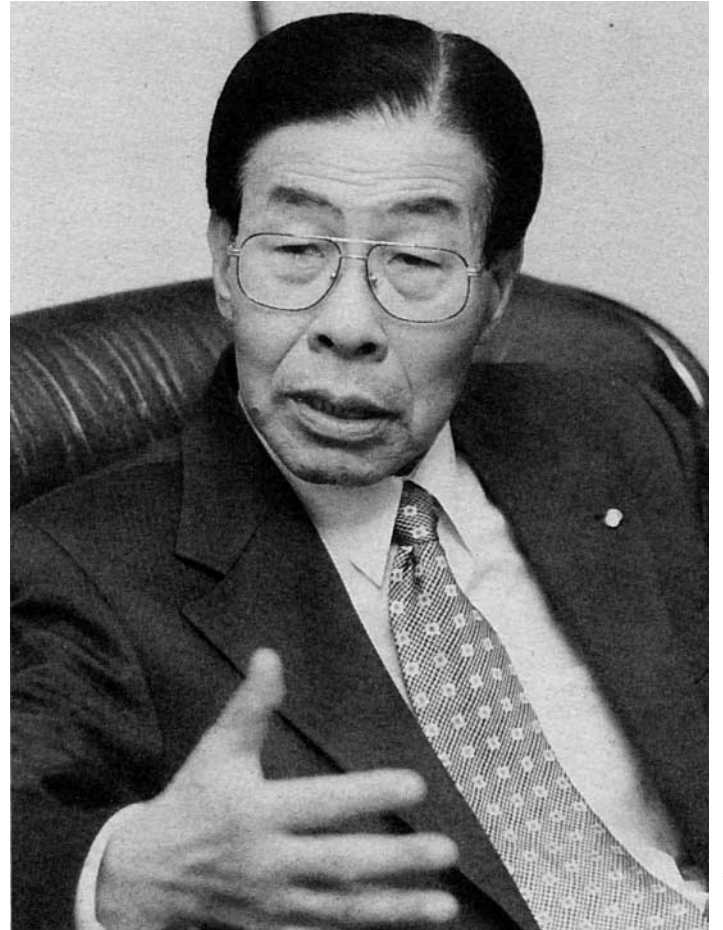
『저는 한전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시켜 외화차입 규모를 대폭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정리, 고효율·저가격의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한전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도 한전은 국민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전력교류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

간 전력계통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이는 남북한 화합에도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북한진출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중 한전이 최초로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성들도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업을 갖고 일하는 여성인구가 6%에 불과하고 한전의 경우 더욱 낮아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후 신입사원의 20%를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채용되는 여성전문인력이 원자력, 송배전 등 각분야에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생각입니다』

—서울대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동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회생과 活力회복에 동참하고, 앞장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서울大人的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며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變)

인도네시아지부

지부 분담금 5백달러 전달



지난 9월 18일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環)의 鄭武雄(64년 商大卒)부회장이(사진)이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에게 지부분담금 5백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鄭부회장은 인도네시아지부 현황을 소개하면서 최근 朴鎮佑(65년 法大卒)의환은행

뉴욕지부

宋寬鎬회장 선출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尹延玉)는 지난 8월 18일 뉴저지주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임원진을 개선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宋寬鎬(64년 醫大卒)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宋회장은 지난 6월말까지 재미의대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사무총장에 朴尙元(73년 音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워싱턴지부

韓義生회장 뽑아

워싱턴지부동창회(회장 丁有相)는 최근 Seneca Creek State Park에서 제19차 정기총회 겸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韓義生(66년 獸醫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차기회장이 될 수석부회장에 李來源(62년 師大卒)동문, 부회장에 鄭又淳(61년 師大卒)·李勝植(65년 農大卒)·文成吉(70년 醫大卒)·崔東浩(72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그동안 총무를 맡아온 金周熹(78년 工大卒)동문을 총무 겸 재무담당에 재선임하고 감사에 李允柱(70년 商大卒)동문을 선출했다.

필라델피아지부

崔炫太회장 선임

필라델피아지부동창회(회장 金容國)는 최근 「돌고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개선했다.

신임 회장에 崔炫太(69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鄭惠準(67년 商大卒)동문, 부회장에 高玲子(69년 齒大卒)·趙英一(72년 工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초대 회장에 禹炘仙동문 선출



禹炘仙회장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는 지난 8월 1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모교 환경대학원 楊秉彝원장을 비롯해 崔

(풍림산업 부회장)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이사에 金秀吉(금풍개발 회장)·南宇奎(한국토지개발공사 감사실장)·庾鳳吉(우당종합건설 대표)·趙誠泰(삼부기술 대표)·安政煥(삼풍종합건축 대표)·林麟鎬(호계엔지니어링 대표)동문, 감사에 李宣(한석엔지니어링 부회장)·李元在(파주시의회 사무국장)동문, 총간사장에 洪誠杓(용마교통기술연구원장)동문, 홍보교육간사에 白石斗(한국하우징 대표)동문, 조직섭외간사에 朴萬吉(세테크 대표)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공부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동창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바자회 통해 발전기금 마련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모교 간호대 기숙사 1층 라운지와 앞뜰에서 「간호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56년 졸업 동기회에서 국수, 66년 졸업동기회에서 식탁보와 매트, 70년 졸업동기회에서 참기름과 깨 등을 단체 기증했으며, 개인 품

목으로는 楊회장이 대접 세트와 반상기, 朴寬順동문이 도자기 및 선풍기 세트 등을 기증한 것을 비롯해 총 33명의 동문들이 70여종의 품목을 기증해 판매했다.

또한 73년·74년·80년 졸업 동기회에서는 바자회 기간동안 해물파전, 김밥, 순대 등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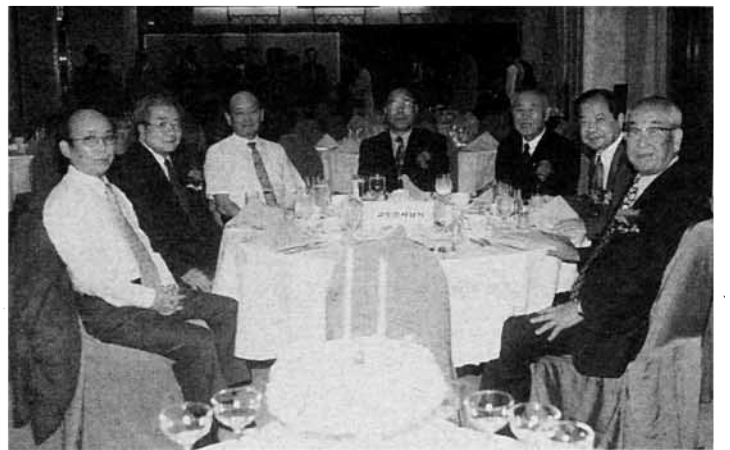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가져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全錫洪)는 지난 9월 16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환경대학원 개원 25주년 겸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문화관 소강

당에서 거행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환경관련 30여개의 학회가 모여 「21세기 도시·환경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 등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치대22회

30주년 기념 골프대회 개최

치대22동기회(회장 朴勝五)는 지난 8월 22일 올림픽아호텔에서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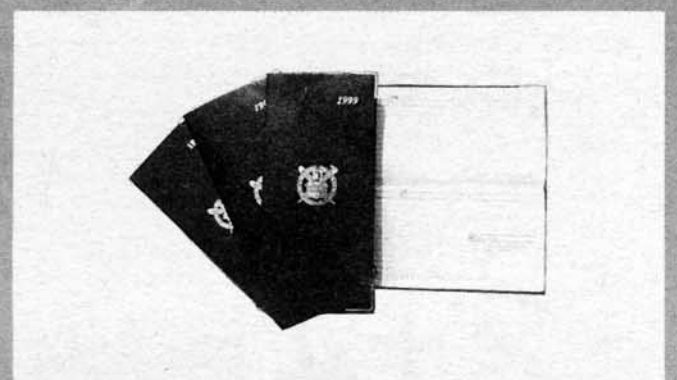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30주년 기념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참석한 은사 전원에게 전달했으며, 同會와 모교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同會는 이날 태광CC에서 30주년 기념 골프대회를 가졌으며, 여성 회원인 具玉卿(구옥경치과원장)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美)

99년 「포켓용 DIARY」를 드립니다.



본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모교와 동창회 활성화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동문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포켓용 DIARY」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과 재질로 제작,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단, DIARY제작에 드는 비용과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98년도 동창회비를 12월말까지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에 한하여 보내드리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총 동 창 회 사 무 처

대학원 보철학전공

조선족에 의료기기·약품 전달



李丙台(右)이 인민병원 원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

대학원 보철학전공동창회(회장 具昌書)는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위생국 초청으로 제2인민병원 구강과를 방문했다.

李丙台(이병태치과의원장)동문을 단장으로 총 16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치과기공기자재 및 의약품 전달식을 가

졌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의료계 인사와 지속적인 교류 및 친선의 기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同會는 77년 12월 결성된 후 현재 1백60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춘계 야외행사와 연 5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건축학과 27회

장학·도서기금 4백만원 출연



건축학과27동기회(회장 金名煥)는 지난 9월 19일 모교 공대 35동 416호에서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다.

「25년만의 등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25년만에 다시 찾아와 보니 감회가 새롭고, 발전되고 더 나아진 모교에 마음이 뿌듯하다」

고 말했다.

이어 洪性穆건축학과동창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함께 참석해 주신데 감사하며, 후배들 격려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 자리가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건축학과동창회에 장학기금 3백만원, 학과에 도서기금 1백만원씩을 각각 출연했으며, 기념영상물 상영으로 지나간 학창시절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대32회

졸업 20주년 사은회

의대32동기회(회장 文熙範)는 지난 8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졸업 20주년 기념 사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朱權源(한국배상의학회장), 權舜赫(독립자 명예회장·前모교 총장), 白萬基(모교 명예교수), 李吉女(길병원 이사장·의대동창회장), 李正相(모교 의대학장), 朴容眩(모교 병원장)동문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韓圭燮(모교 교수)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文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열정과 패기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은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참된 의술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同會는 이날 「과거의 사진들」이란 주제의 슬라이드 관람 행사를 마련, 아련한 옛 추억을 회상하며 새로운 미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응용물리학과

주소록 발간키로

응용물리학과동창회(회장 吳啓煥)는 지난 8월 27일 강남구 소재의 「한미리」 한식당에서 98년도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 은사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同會 주소록을 재정비해 발간키로 협의했다.

이날 모임은 잠시 잊고 지냈던 동문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인류학과

기별모임 활성화

인류학과동창회(회장 柳志賢)는 지난 9월 15일 중구 태평로 소재 「마당」에서 정기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李鍾哲(국립민속박물관장)초대회장, 金成哲(LG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柳英彪(매일경제 바이오스 가이드 본부장)·金在熙(아이큐브사 관리부장)동문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尹丁華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문간의 교류확대와 기별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협의했으며, 10월 18일 총동창회 등산대회시 재차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信〉

모교소식

학사조직 개편안 확정

학부대학 10개 계열로 학생 선발

12개 일반·7개 전문대학원 두기로

모교는 지난 9월 15일 학장 회의에서 학사조직 개편안의 학부대학 모집계열과 전공선택 시기 등 일부 항목을 수정, 16일 교수평의원회를 거쳐 21일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학사조직은 크게 1개의 학부대학, 12개의 일반대학원, 7개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학부대학은 인문·사회·기초과학·응용과학1(공학)·응용과학2(간호·생활과학·사범·농업생명과학)·음악·미술 등 10개 계열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전공선택 시기와 관련해 2, 3학년 진학시에

전공을 선택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2학년 진학과 함께 선택하는 전공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공계열 대부분의 전공 및 법학부, 경영학부 등에서 학부대학 2학년 진학시에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대학원에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호, 경영, 공학, 농업생명과학, 미술, 법학, 사범, 생활과학, 음악 분야를 두며 전문대학원은 수의학, 약학, 의학, 치의학, 보건, 행정, 환경 분야를 둔다. 이 가운데 수의학, 약학, 의학, 치의학 분야는 학부대학 1년 수료자 중에서 선발, 1년후에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한다.

법대 학장에 金裕盛교수

지난 6월 3일자로 법대학장에 金裕盛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金학장은 64년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감리교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金학장은 재외국민교육연구소장, 공법학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



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공대 전기공학부 李商郁교수

제2회 「최우수 연구상」 받아



다.

이 상은 서울대 이름으로 발표한 연구논문 중에서 국제과학논문 인용목록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인용건수가 가장 많은 논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韓民九교수가 처음으로 수상한 바 있다.

李교수는 90년 11월 전기전자공학회 학술지(IEEE)에 발표한 신호처리와 관련한 논문이 97년까지 26차례나 인용돼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變〉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클린턴 거짓말은 빠알개...

◇클린턴 거짓말은 빠알개, 빨간 건 대포동, 대포동은 무서워, 무서운 건 손가락 자른 아버지, 아버지는 실업자, 실업자는 서울역, 서울역은 기차, 기차는 길어, 긴 것은 휴지, 휴지는 루블화, 루블화는 러시아, 러시아는 추위, 추운 건 증시, 증시는 위태로워, 위태로운 건 클린턴, 클린턴 거짓말은 빠알개, 빨간 건 대포동...

만평

李元馥

2+4=

외문제의 정답은?

1!

쥬!

동임을 위한 남북대화방식

서울대 구조조정 방안..

1998.10.15

문화단신

新刊

■회사 운명학
—尹銘重 著

한국노동연구원 객원 교수인 尹銘重(57년 文理大卒) 동문이 일반 회사의 운명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뒤바뀌는가를 경영외적인 방향에서 연구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는 사장과 임원들의 相性, 비즈니스맨의 운세리듬, 社屋이 가리키는 회사의 운세, 사람이름과 회사이름의 운명학 등이 생생한 사례연구와 함께 담겨있다. <동학사刊·값15,000원>

■사무엘 올만과 「青春」
—尹惠淳 譯

한국은행 인력개발실장을 역임한 尹惠淳(63년 法大卒) 동문이 시인 사무엘 올만의 생애와 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서를 펴냈다. 올만 연구자인 엘라베 마다 암브레스터 교수가 꼼꼼한 주석을 담아 열정

적인 그의 삶을 정리한 것이 尹 동문에 의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정확하고 분명한 번역문을 위해 한자를 함께 게재한 것이 이 책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삶과 꿈刊·값12,000원>

번역서를 펴냈다.

올만 연구자인 엘라베 마다 암브레스터 교수가 꼼꼼한 주석을 담아 열정

■시사독해

고급 프랑스어
—金眞秀 著

서경대학교 불어과 과장인 金眞秀(85년 大學院卒) 동문이 「프랑스어 첫걸음」, 「초급 프랑스어」, 「중급 프랑스어」에 이어 「고급 프랑스어」를 펴내時事프랑스어를 통한 살아있는 언어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이 책은 크게 1·2부로 나누

어 프랑스 주요언론의 한국관련 기사와 프랑스 제1의 유력지인 르몽드의 톱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삼지사刊·값12,000원>

■은덕이의 입체조형실기
—朴恩德 著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인 朴恩德(86년 美大卒) 동문이 아동미술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다룬

「아동화 이야기」, 「평면 조형실기」에 이어 3번째 「입체 조형실기」를 최근 출간했다.

새롭고 다양한 입체 조형실기법과 그 응용을 소개함과 아울러 실제 아동의 작품을 수록, 창의성 개발을 위한 조형 실기를 지도하는 교사·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양서원刊·값14,000원>

展 示

■李珉柱작품전

—10월 19일 ~ 26일

예술의 전당

한국화가 李珉柱(80년 美大卒) 동문이 마니프조직원위원회와 서울방송이 공동주최하는 「MANIF 4 '98」 서울국제 아트페어에 초대돼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기간중 각 Booth별로 작가포럼(관람객과의 만남)도 실시하게 되는데 李동문은 VISION 1-Booth C14에서 「깨달음의 소리」 등 1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리=安興燮 기자>

동문의 소리

배타문화 추방운동 펼쳐야



국으로 번져달라는 소박한 기도인 것이다.

스위스에 있는 IMD(국제경영연구원)와 각종 관광관계자료에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최하위에 있고 주로 국민의 배타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남북화해를 강조하면서 세계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남북간, 외국간에 배타문화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근원적 해결은 어렵다. 소동파가 노승에게 한 수 배운 고사를 인용치 않더라도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지식인의 약점이다.

이 시대의 참다운 지성으로서 서울대인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배타문화 추방운동을 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李秀洪(59년 文理大卒)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분기점에 삼도봉(1,176m)이라는 산이 있다. 여기서 1989년부터 해마다 10월 10일 영동, 무주, 김천 3개 지방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삼도봉 만남의 날」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옛날에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서로 이웃하여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선거때만 되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해 이것을 봉합해보자는 것이고 또 각도로 뻗어 가는 지형의 맥에 따라 화합의 지기가 전

신규 실업자대책 강구하자



해방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한파는 모든 영역을 뚫고 들어볼게 만들고 있다.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기세 등등함에 가히 공포를 느낄 정도이다. 대학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계획이 있는 소수의 기업들마저도 그 규모가 매우 미비해 수많은 예비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마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졸업을 늦

추기 위해 휴학, 군입대,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몇몇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회선배로서 안타깝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더욱 답답함을 느낀다.

21세기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직 실업자뿐만 아니라 신규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들은 적극적인 신규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도 현실을 비판만 하지 말고 다가올 기회를 대비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저력을 믿고 있는 필자로서는 IMF체제는 곧 극복되리라 생각하고 미래를 항상 준비하는 서울대생이 되기를 바란다.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정년(명예)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炳漢교수·중문학

중국고전 시가·비평의 대가

33년 전주에서 출생한 李炳漢교수는 56년 모교 문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중국고전 시가 및 비평에 관한 연구를 통해 「漢詩批評體例의 研究」,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 「中國古典詩學의 理解」 등의 이론서를 저술했다.

李교수는 한국중국어학회 회장, 동방문화비교연구회 회장, 한국비교문화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국문화이론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李秉建교수·영문학

음운론의 연구업적 뛰어나

33년 경남 진양 출생인 李秉建교수는 57년 사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73년 미인디애나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부임, 영어학 분야중 음운론의 연구활동에 주력하면서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음운론 논문집」, 「확실히와 확실이」 등의 저서와 「한국어의 모음조화」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 영어학계의 발전에 힘쓴 李교수는 재직중 영문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朴煥德교수·독문학

카프카·괴테 연구의 권위자

33년 전북 남원 출생인 朴煥德교수는 56년 문리대 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4년간 공군사관학교 독어교관으로 첫 교편을 잡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프란츠 카프카와 귄터 그라스 같은 현대작가 연구와 고전주의 대문호 괴테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파우스트」, 「양철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유리알 유희」 등 여러 우수한 번역서를 출간했다.

朴교수는 한국카프카 회장,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姜命圭교수·경제학

경제사학회서 주도적 활동

33년 충남 공주 출생인 姜命圭교수는 52년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 74년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姜교수는 62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경제학설사와 경제체제론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며 경제사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중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한 姜교수는 「경제학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경제성장의 제단계」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를 저술했다.



崔柄斗교수·물리학

반도체물리학 연구에 기여

33년 경기도 개성 출생인 崔柄斗교수는 54년 모교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75년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6년 공대 응용물리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崔교수는 반도체물리학 연구를 통해 후학양성과 한국반도체물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崔교수는 모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의예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며 물리학 실험, 특히 화합물 반도체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1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명예)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문학·종교분야 새 시각 제시

33년 경남 김해에서 출생한 金哲子교수는 57년 모교 문리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서독 본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사대에 조교수로 부임해 특히 하인리히 뵐 연구에 공헌했으며 문학과 종교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독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金교수는 「현대독문학에 그려진 인간상 - 하인리히 뵐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 독일 기독교문학 이론과 문학신학」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金哲子교수·독문학

사회철학 강의로 명성 얻어

33년 목포에서 출생한 車仁錫교수는 52년 문리대 철학과에 입학, 57년 미아델파이대를 졸업한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하여 한국철학회 회장, 철학연구회 회장, 현상학회 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車교수는 정치학, 현상학, 사회 및 역사철학에 관한 연구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대정치와 철학」, 「사회인식론」, 「사회와 철학」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車仁錫교수·철학

발달심리학 발전 기초 다져

33년 경북 고령에서 출생한 徐鳳延교수는 55년 문리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75년 경북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5년 조교수로 모교에 부임, 발달 심리학, 청·장년 발달, 발달 장애 등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펼치며 한국심리학회 회장, 발달심리학회 회장, 인간발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徐교수는 80년 인간발달·복지 연구소를 창설, 낙후지역 유아 및 아동들의 보상 교육과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교육에도 노력한 바 있다.



徐鳳延교수·심리학

한국천문학·천문대 이끌어

38년 대구에서 출생한 李時雨교수는 62년 문리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 76년 호주국립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교수를 거쳐 80년 모교 자연대 천문학과에 재직하면서 한국천문학회 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년을 5년 앞두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한 李교수는 관측천문학, 특히 항성계의 측광연구를 통한 항성의 진화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李時雨교수·천문학



洪麗信교수·간호학

간호계 대들보로 자리매김

33년 함경남도 영흥 출생인 洪麗信교수는 54년 의대부속 간호학과를 졸업, 미네소타대에서 이학 학사·석사학위를 받고 콜럼비아대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4년 모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부임, 기본간호학, 간호교육 등의 강의를 하며 모교 간호대학장, 대한간호학회장, 한국간호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洪교수는 「성인간호학」, 「간호특론」, 「간호윤리학」 등의 저서와 「노인성치매환자 가족간호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효과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閔哲泓교수·디자인학

산업디자인 발전의 산 증인

33년 서울에서 출생한 閔哲泓교수는 58년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메일리노이 공대 디자인학부에서 대학원과정을 수학했다.

閔교수는 63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국전 및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문화공보부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를 창설한 閔교수는 체신 1호 전화기, 대한민국 국장디자인, 서울올림픽 기록조형물 디자인 등 많은 작품활동을 펼쳤다.



申光淳교수·수의학

수의공중보건학 중추 역할

33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申光淳교수는 56년 수의대를 졸업한 후 62년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80년 건국대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수의대 부교수로 부임해 우리나라 수의공중보건학과 식품위생학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및 한국식품위생 안전성학회장을 역임하며 「최신 식품위생학」,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徐景弼교수·의학

아동치료에 주력한 의학자

33년 서울에서 출생한 徐景弼교수는 57년 모교 의대를 졸업, 68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徐교수는 의학연구원 심장연구소장, 심장혈관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심장외과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흉부외과학의 선구자인 徐교수는 특히 아동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여 美보스턴 아동병원, 영국 런던 아동병원 등지에서 연구하며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尹德老교수·의학

고압산소 치료수준 앞당겨

33년 서울에서 출생한 尹德老교수는 58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66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尹교수는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비행군의관으로서 항공 및 환경의학 분야에 관심을 두다가 6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예방의학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尹교수는 모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장,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기인 고압산소 치료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咸毅根교수·의학

국내 병리학 발전기를 마련

33년 강원도 고성에서 출생한 咸毅根교수는 58년 모교 의대를 졸업, 66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咸교수는 대한병리학회장, 대한암학회장, 대한세포병리학회장, 한국전자현미경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법의학교실 주임교수, 모교병원 제2진료 부원장을 지낸 咸교수는 83년 미국 미시건대에서 세포병리학을 연수했으며 저서인 「병리학」의 1백78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위생공학분야 개척자

33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한 朴仲鉉교수는 57년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68년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朴교수는 69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위생공학 강의를 하며 대한상하수도학회장,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위생공학박사 1호로서 위생공학분야를 선구적으로 개척한 朴교수는 우리나라 상하수도시설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朴仲鉉교수·도시공학

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맹활약

33년 대구에서 출생한 金哲洙교수는 56년 모교 법대를 졸업, 71년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2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金교수는 한국공법학회장, 법학교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헌법학, 법철학, 법사상사 연구를 통해 「헌법학개론」, 「현대헌법론」, 「한국헌법사」 등을 저술했다.

국제헌법학회 집행이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金교수는 76년부터 본보 논설위원으로 재임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金哲洙교수·법학

암연구 및 예방계몽에 힘써

33년 충북 괴산 출생인 金鎭福교수는 58년 의대를 졸업한 뒤 수도육군병원에서 일반외과 전공의과정을 수료, 66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대한암연구재단을 설립했으며 대한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위암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 암계몽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국제위암학회 차기회장인 金교수는 한국최초로 미국의 과학회와 미국의과학술원의 명예교수로 피선되기도 했다.



金鎭福교수·의학

내분비 생리학 발전에 공헌

33년 서울 출생인 成虎慶교수는 57년 의대를 졸업, 65년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생리학 연구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78년 모교 의대 부교수로 부임, 내분비 생리학 분야에서 60여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며 후학양성 및 학문연구에 정진했다.

成교수는 대한생리학회장, 내분비학회 부회장, 핵의학회 이사, 스포츠학회 감사, 국제심포지엄의 대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成虎慶교수·의학

신생아학회 초대회장 역임

33년 서울 출생인 尹鍾求교수는 59년 모교 의대를 졸업, 73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尹교수는 69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일본 OKAYAMA소아병원, 미국 시카고대 소아병원에서 신생아학 연수를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의 기술 도입에 진력했다.

尹교수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대한소아과학회 회장, 대한신생아학회 초대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국외의 신생아학 석학들과의 학술교류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尹鍾求교수·의학

재무행정의 달인 인정받아

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姜信澤교수는 59년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 69년 美펜실바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한 姜교수는 행정학 특히, 재무행정분야 연구에 주력하여 「재무행정론」,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姜교수는 모교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행정학회 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행정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姜信澤교수·행정학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一般 : 98년 5월 8일~8월 2일〉

회 장 단

▲부회장 河永基=1백만원
▲부회장 金性洙=1백만원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부회장 玄在賢=1백만원

일 반

◇人文大學

▲강현국 ▲고인숙 ▲김기만 ▲김복택
▲김상호 ▲김석화 ▲김용철 ▲김종수
▲김태현 ▲김한규 ▲김한국 ▲문안나
▲문운순 ▲박영규 ▲박용수 ▲박하영
▲백영서 ▲성정용 ▲손진욱 ▲송기국
▲신동수 ▲심양섭 ▲오선희 ▲오정섭
▲육영재 ▲유종목 ▲이기현 ▲이명훈
▲이미산 ▲이범규 ▲이상화 ▲이상섭
▲이인성 ▲이인용 ▲이정승 ▲이화연
▲전인환 ▲정말순 ▲정영란 ▲조미선
▲조인식 ▲조해영 ▲최 민 ▲하성식
▲하원영 ▲홍구표 ▲홍기선 ▲홍성민
▲홍의영 ▲황은경

◇社會科學大學

▲강병일 ▲김기영 ▲김기준 ▲김동식
▲김병수 ▲김부성 ▲김석구 ▲김성영
▲김수호 ▲김영진 ▲김용구 ▲김이환
▲김익성 ▲김인수 ▲김재형 ▲김경영
▲김종민 ▲김준영 ▲김지호 ▲김진기
▲김창섭 ▲김창욱 ▲김태환 ▲김현수
▲김형석 ▲김환준 ▲김희철 ▲류상용
▲박경욱 ▲박근섭 ▲박동영 ▲박용린
▲박정서 ▲박정호 ▲박종환 ▲서진욱
▲성은지 ▲송민경 ▲심일혁 ▲안영일
▲양우진 ▲엄형섭 ▲오문석 ▲유재원
▲윤현중 ▲이근승 ▲이동규 ▲이동훈
▲이상원 ▲이영식 ▲이재진 ▲이정진
▲이정호 ▲이종환 ▲이충근 ▲이호식
▲임병수 ▲장원영 ▲전병각 ▲전상일
▲전성훈 ▲장남석 ▲정동현 ▲정영환
▲정원호 ▲정인혁 ▲정현호 ▲조기승
▲조주연 ▲조진완 ▲조현석 ▲차용호
▲최 인 ▲최 훈 ▲최병민 ▲최병준
▲최완수 ▲최재호 ▲한인택 ▲홍기두
▲홍석린 ▲홍석진 ▲황선웅

◇自然科學大學

▲강봉균 ▲김대산 ▲김병수 ▲김신원
▲김우식 ▲김일형 ▲김주영 ▲김혁주
▲김홍운 ▲김효종 ▲김후식 ▲남창환
▲노혜림 ▲문희록 ▲민영철 ▲박광식
▲박배호 ▲박영아 ▲박준상 ▲박지용
▲박혜정 ▲박희섭 ▲변희석 ▲서의훈
▲성주호 ▲소재귀 ▲송병기 ▲송준화
▲신기순 ▲안수환 ▲오달균 ▲오재욱
▲이 유 ▲이병규 ▲이봉완 ▲이상구
▲이승훈 ▲이용학 ▲이인근 ▲이재용
▲이재원 ▲이재준 ▲이태원 ▲임인성
▲장승혁 ▲장준민 ▲전동호 ▲정광철

▲정기영 ▲정동근 ▲정인채 ▲조상욱
▲조정희 ▲조진창 ▲최성아 ▲최운경
▲최익규 ▲하남규 ▲한승호 ▲황성주
▲황치욱

◇家政大學

▲정희호 ▲김구자 ▲김명선 ▲김민자
▲김성희 ▲김수향 ▲김은경 ▲김진호
▲김향숙 ▲김혜경 ▲김혜경 ▲류국영
▲박명숙 ▲박복순 ▲박성희 ▲배영민
▲백선자 ▲서혜석 ▲성홍희 ▲손수미
▲송연숙 ▲신금녀 ▲신은철 ▲염운경
▲원명심 ▲유재은 ▲유효선 ▲은경자
▲이명희 ▲이민희 ▲이승선 ▲이승림
▲이영희 ▲이영호 ▲이희주 ▲임수필
▲임인순 ▲정덕희 ▲정혜민 ▲조명숙
▲조옥례 ▲조은경 ▲조혜영 ▲조혜자
▲최영경 ▲한 원 ▲한경옥 ▲한미희

◇看護大學

▲강채원 ▲김광애 ▲김가자 ▲김기주
▲김을자 ▲김혜순 ▲민복희 ▲박계순
▲박선규 ▲박인숙 ▲신순애 ▲이명선
▲이산옥 ▲이성은 ▲임숙빈 ▲전기주
▲조명숙 ▲지영숙 ▲최경숙 ▲최영희
▲한혜숙 ▲허 영 ▲홍희정

◇經營大學

▲고석진 ▲권상훈 ▲권영수 ▲권용기
▲권혁부 ▲김경덕 ▲김경식 ▲김기용
▲김기호 ▲김문수 ▲김병덕 ▲김병욱
▲김석호 ▲김연수 ▲김영권 ▲김영규
▲김영렬 ▲김용진 ▲김재규 ▲김정환
▲김충현 ▲김해석 ▲김현준 ▲김형중
▲김희철 ▲남기명 ▲노석균 ▲문정환
▲박 준 ▲박병규 ▲박성훈 ▲박용립
▲박재연 ▲박준환 ▲박주원 ▲박훈기
▲배덕모 ▲서태환 ▲서락현 ▲손병규
▲송성호 ▲송인성 ▲송진간 ▲신용삼
▲신중철 ▲신철호 ▲양국진 ▲양기봉
▲양옥렬 ▲양태환 ▲우정영 ▲원효성
▲유 진 ▲유재화 ▲유태영 ▲유희석
▲이 평 ▲이대환 ▲이동기 ▲이석영
▲이종팔 ▲이현택 ▲이형주 ▲이희준
▲임병익 ▲임성원 ▲진형노 ▲최영준
▲최재후 ▲함시창 ▲황동철 ▲황성엽
▲황수연

◇工科大學

▲강구선 ▲강남식 ▲강대룡 ▲강동규
▲강부건 ▲강상근 ▲강성호 ▲강성혁
▲강운걸 ▲강재수 ▲강창수 ▲강태갑
▲강학수 ▲강현식 ▲강호익 ▲고대중
▲고영희 ▲고원룡 ▲고재선 ▲고창현
▲고현성 ▲고형석 ▲곽동수 ▲곽병현
▲곽해근 ▲곽희로 ▲구경본 ▲구길신
▲구지운 ▲국광호 ▲권기동 ▲권기영
▲권기훈 ▲권동일 ▲권봉일 ▲권영돈
▲권오식 ▲권육현 ▲기원강 ▲김 용
▲김건일 ▲김경덕 ▲김경범 ▲김경수
▲김경수 ▲김경희 ▲김관석 ▲김광권
▲김광길 ▲김규남 ▲김기봉 ▲김기국

▲김기현 ▲김기형 ▲김남호 ▲김대영
▲김내환 ▲김덕중 ▲김덕초 ▲김도향
▲김동길 ▲김동상 ▲김동수 ▲김동식
▲김동주 ▲김동주 ▲김동현 ▲김동훈
▲김득수 ▲김모세 ▲김무영 ▲김문환
▲김반석 ▲김방광 ▲김범준 ▲김병교
▲김병재 ▲김성기 ▲김성로 ▲김성보
▲김성운 ▲김성진 ▲김성철 ▲김성환
▲김수경 ▲김수남 ▲김수홍 ▲김순일
▲김승준 ▲김신우 ▲김안순 ▲김양성
▲김연식 ▲김영권 ▲김영남 ▲김영문
▲김영섭 ▲김영성 ▲김영욱 ▲김영웅
▲김영운 ▲김영재 ▲김영천 ▲김영훈
▲김유규 ▲김용욱 ▲김용철 ▲김용철
▲김용대 ▲김용환 ▲김용희 ▲김용범
▲김원식 ▲김유형 ▲김유희 ▲김문제
▲김웅중 ▲김의석 ▲김익남 ▲김인섭
▲김재철 ▲김재업 ▲김재영 ▲김재원
▲김재중 ▲김재학 ▲김재현 ▲김재형
▲김정건 ▲김정규 ▲김정기 ▲김정현
▲김재원 ▲김종국 ▲김종민 ▲김종의
▲김종호 ▲김준식 ▲김준철 ▲김준연
▲김지호 ▲김진오 ▲김진환 ▲김진수
▲김창규 ▲김창석 ▲김철순 ▲김철원
▲김춘배 ▲김춘영 ▲김충기 ▲김철영
▲김태균 ▲김태성 ▲김태업 ▲김태훈
▲김평호 ▲김한영 ▲김해전 ▲김현원
▲김형모 ▲김형석 ▲김형진 ▲김홍민
▲김환규 ▲김환기 ▲김효원 ▲김희철
▲남 홍 ▲남국욱 ▲남기동 ▲남시도
▲남장수 ▲남준우 ▲노철규 ▲노태환
▲노효상 ▲류명선 ▲류영석 ▲문병수
▲문승일 ▲문원모 ▲문정석 ▲문준규
▲민상기 ▲민수홍 ▲박경린 ▲박구원
▲박규원 ▲박근재 ▲박기서 ▲박기용
▲박기철 ▲박기환 ▲박내영 ▲박대복
▲박봉규 ▲박상규 ▲박상철 ▲박석수
▲박석준 ▲박성현 ▲박성훈 ▲박수안
▲박순길 ▲박승일 ▲박신규 ▲박희화
▲박용기 ▲박용운 ▲박원규 ▲박응대
▲박의종 ▲박익민 ▲박재룡 ▲박재범
▲박재서 ▲박재환 ▲박재근 ▲박재대
▲박정훈 ▲박종민 ▲박종태 ▲박주환
▲박진우 ▲박정기 ▲박호창 ▲박원수
▲박희규 ▲박석현 ▲박정은 ▲박광준
▲배승환 ▲배익환 ▲배태식 ▲박기남
▲백남성 ▲백남주 ▲백병환 ▲백선기
▲백창욱 ▲변영희 ▲변우진 ▲부상훈
▲부창열 ▲변영석 ▲서강주 ▲서기영
▲서봉수 ▲서상호 ▲서영태 ▲서종철
▲서희수 ▲석효경 ▲설원희 ▲설재훈
▲성환진 ▲소병훈 ▲손 훈 ▲손경영
▲손석광 ▲손혜환 ▲송경수 ▲송광호
▲송배원 ▲송주철 ▲송진익 ▲송진태
▲송창근 ▲송태영 ▲송효상 ▲신동현
▲신동현 ▲신용석 ▲신원용 ▲신정철
▲신지수 ▲신창덕 ▲신충선 ▲신태현
▲신희균 ▲심윤식 ▲심임섭 ▲심재원
▲심형주 ▲안상록 ▲안상희 ▲안우희
▲안준철 ▲안철수 ▲안치명 ▲안희영
▲양 갑 ▲양민양 ▲양상현 ▲양승일
▲양승훈 ▲양운홍 ▲양정식 ▲양익준

▲여민중 ▲여인갑 ▲염창신 ▲오경식
▲오무강 ▲오병국 ▲오양관 ▲오양섭
▲오재화 ▲오정환 ▲오치남 ▲왕 영
▲우종삼 ▲우효섭 ▲원성필 ▲원재현
▲원종욱 ▲원형재 ▲유남열 ▲유도준
▲유동림 ▲유성열 ▲유영삼 ▲유영창
▲유완상 ▲유용하 ▲유용석 ▲유인섭
▲유정근 ▲유창식 ▲유호섭 ▲유홍철
▲육내수 ▲윤남진 ▲윤병양 ▲윤봉환
▲윤상철 ▲윤석중 ▲윤승하 ▲윤신박
▲윤여환 ▲윤영수 ▲윤영식 ▲윤우석
▲윤우현 ▲윤문모 ▲윤의광 ▲윤재건
▲윤준철 ▲윤철수 ▲이 향 ▲이경환
▲이경훈 ▲이광기 ▲이광석 ▲이광우
▲이광진 ▲이규성 ▲이근영 ▲이근배
▲이근욱 ▲이덕열 ▲이동관 ▲이동현
▲이동호 ▲이명철 ▲이무진 ▲이방원
▲이범철 ▲이병수 ▲이병하 ▲이복재
▲이복춘 ▲이봉오 ▲이상건 ▲이상권
▲이상석 ▲이상우 ▲이상일 ▲이상태
▲이상현 ▲이상현 ▲이상화 ▲이상훈
▲이석원 ▲이선계 ▲이선우 ▲이성관
▲이성기 ▲이성기 ▲이성률 ▲이성원
▲이성훈 ▲이수복 ▲이수원 ▲이수형
▲이수훈 ▲이순병 ▲이승률 ▲이승욱
▲이승일 ▲이승환 ▲이승훈 ▲이아영
▲이여은 ▲이원수 ▲이용석 ▲이용식
▲이용재 ▲이용훈 ▲이우일 ▲이원복
▲이원호 ▲이영렬 ▲이의남 ▲이익용
▲이인범 ▲이인수 ▲이임택 ▲이재광
▲이재용 ▲이재욱 ▲이재원 ▲이재원
▲이재운 ▲이재철 ▲이재훈 ▲이정규
▲이정남 ▲이정옥 ▲이종민 ▲이종찬
▲이준성 ▲이준환 ▲이준희 ▲이준현
▲이지복 ▲이진근 ▲이창규 ▲이창룡
▲이준식 ▲이한정 ▲이형석 ▲이호선
▲이호준 ▲이훈기 ▲이황수 ▲이후철
▲임동수 ▲임동조 ▲임민직 ▲임민규
▲임미녀 ▲임석현 ▲임성민 ▲임연수
▲임영섭 ▲임재용 ▲임준석 ▲임진희
▲임태원 ▲임현구 ▲장 석 ▲장기욱
▲정동우 ▲정규주 ▲정석주 ▲정영원
▲정영태 ▲정재익 ▲정준근 ▲정현갑
▲전 운 ▲전담문 ▲전민재 ▲전범기
▲전봉수 ▲전상규 ▲전성욱 ▲전세진
▲전주영 ▲전창영 ▲정 준 ▲정정렬
▲정구동 ▲정규필 ▲정동운 ▲정봉주
▲정세화 ▲정수민 ▲정숙철 ▲정연원
▲정원영 ▲정인수 ▲정인영 ▲정인용
▲정인택 ▲정재관 ▲정재택 ▲정재훈
▲정주창 ▲정진오 ▲정창우 ▲정충기
▲정태규 ▲정하성 ▲정해석 ▲정희원
▲조규진 ▲조규홍 ▲조남일 ▲조남철
▲조달하 ▲조덕산 ▲조동식 ▲조주제
▲조영태 ▲조용범 ▲조용호 ▲조용훈
▲조용훈 ▲조인준 ▲조창희 ▲조창수
▲조정현 ▲조정호 ▲조창희 ▲조치룡
▲조길돈 ▲조상현 ▲주영범 ▲주재희
▲주희진 ▲지 준 ▲진현영 ▲차성현
▲차진수 ▲채 기 ▲채수익 ▲천남중
▲전성록 ▲전진희 ▲최갑식 ▲최경락
▲최규영 ▲최기영 ▲최동환 ▲최득수

▲최병두 ▲최병천 ▲최상갑 ▲최상진
▲최석경 ▲최석주 ▲최승화 ▲최수준
▲최승철 ▲최영섭 ▲최영태 ▲최영택
▲최원철 ▲최원철 ▲최의원 ▲최일동
▲최정원 ▲최종근 ▲최종훈 ▲최준식
▲최진영 ▲최창환 ▲최창순 ▲추정호
▲하동호 ▲하순희 ▲하태광 ▲한 엽
▲한규택 ▲한기석 ▲한동수 ▲한민홍
▲한병환 ▲한성영 ▲한승국 ▲한운정
▲한이수 ▲한정섭 ▲한준하 ▲한희희
▲허 준 ▲허길수 ▲허영철 ▲허준호
▲현정훈 ▲홍상희 ▲홍성복 ▲홍성훈
▲홍순곤 ▲홍순일 ▲홍재훈 ▲홍진기
▲홍희희 ▲홍재준 ▲황계문 ▲황덕규
▲황석운 ▲황성현 ▲황정수 ▲황창규
▲황철웅 ▲황희규

◇農科大學

▲강창호 ▲강광희 ▲강명길 ▲강문주
▲강원봉 ▲강경일 ▲강성현 ▲고일영
▲고홍식 ▲곽원석 ▲곽준삼 ▲권오원
▲권태길 ▲권혁세 ▲권혁재 ▲금방용
▲김 철 ▲김갑근 ▲김경수 ▲김규래
▲김내현 ▲김대우 ▲김동익 ▲김두식
▲김문수 ▲김병운 ▲김세겸 ▲김시훈
▲김영국 ▲김영도 ▲김원숙 ▲김원훈
▲김재운 ▲김정목 ▲김정환 ▲김종률
▲김종무 ▲김지문 ▲김진근 ▲김진목
▲김창호 ▲김철영 ▲김현영 ▲김훈동
▲김희창 ▲노영성 ▲노홍섭 ▲류관희
▲민두식 ▲민준석 ▲박관식 ▲박기수
▲박동진 ▲박상민 ▲박성환 ▲박수찬
▲박승걸 ▲박용재 ▲박용재 ▲박용봉
▲박재현 ▲박준국 ▲박천서 ▲박희구
▲배종선 ▲백은호 ▲백창영 ▲서동영
▲서병수 ▲서승덕 ▲서원수 ▲서용택
▲서정선 ▲성기준 ▲성명재 ▲성상경
▲성용훈 ▲손세호 ▲손진규 ▲손현수
▲송계원 ▲송기면 ▲송삼석 ▲송종관
▲송종익 ▲신대용 ▲신명철 ▲신서균
▲신제성 ▲신준우 ▲신천수 ▲신패송
▲신태식 ▲안건용 ▲안상남 ▲안상원
▲안병이 ▲오근배 ▲오시권 ▲오학영
▲오현우 ▲우관희 ▲우병국 ▲원준영
▲원주식 ▲유 석 ▲유근환 ▲유대식
▲유병세 ▲유병현 ▲유인천 ▲유철호
▲유혁근 ▲유희기 ▲윤규영 ▲윤석복
▲윤인화 ▲윤정숙 ▲이강남 ▲이경국
▲이관호 ▲이관희 ▲이근자 ▲이기순
▲이기영 ▲이기중 ▲이달문 ▲이도천
▲이돈구 ▲이동현 ▲이동희 ▲이민복
▲이명희 ▲이무성 ▲이병래 ▲이복남
▲이상구 ▲이상범 ▲이상하 ▲이석봉
▲이선길 ▲이선진 ▲이수욱 ▲이수홍
▲이신기 ▲이이연 ▲이영래 ▲이영열
▲이영찬 ▲이용환 ▲이우용 ▲이재완
▲이정민 ▲이종섭 ▲이종화 ▲이지원
▲이창복 ▲이태종 ▲이형구 ▲이혜근
▲이홍석 ▲이희형 ▲이흥수 ▲임광환
▲임명균 ▲임병기 ▲임용재 ▲임용택
▲장순영 ▲장지철 ▲장문용 ▲장정동
▲장정수 ▲전석수 ▲전현기 ▲정규영

▲정도섭 ▲정병기 ▲정병현 ▲정선용 ▲정수봉 ▲정연택 ▲정영복 ▲정윤규 ▲정정민 ▲정주영 ▲정진석 ▲정천용 ▲제정주 ▲조규열 ▲조규태 ▲조병국 ▲조병진 ▲조병준 ▲조성지 ▲조성환 ▲조수경 ▲조수형 ▲조용섭 ▲조준수 ▲조지철 ▲조현준 ▲주승중 ▲지근진 ▲진창근 ▲차재선 ▲최광석 ▲최동열 ▲최무재 ▲최재복 ▲태용문 ▲한상진 ▲한인규 ▲한대우 ▲한화섭 ▲현권수 ▲현호연 ▲홍승진 ▲홍종진 ▲홍현주 ▲황세성 ▲황영지

◇ 文 理 科 大 學

▲강경신 ▲강명순 ▲강병원 ▲강병택 ▲강수범 ▲강신표 ▲강의정 ▲강인숙 ▲강재인 ▲고광삼 ▲고광용 ▲고병국 ▲고영근 ▲고인석 ▲공대식 ▲곽복록 ▲구봉희 ▲구자홍 ▲권오양 ▲권오용 ▲권대승 ▲김 승 ▲김갑용 ▲김강년 ▲김경두 ▲김경수 ▲김경환 ▲김계린 ▲김광우 ▲김광태 ▲김기봉 ▲김기선 ▲김기현 ▲김남기 ▲김남현 ▲김년대 ▲김덕환 ▲김동렬 ▲김동역 ▲김동욱 ▲김동일 ▲김리나 ▲김무창 ▲김문수 ▲김문창 ▲김방한 ▲김병각 ▲김복주 ▲김사행 ▲김상욱 ▲김석민 ▲김성기 ▲김세균 ▲김승길 ▲김순섭 ▲김승의 ▲김영노 ▲김영도 ▲김영문 ▲김영수 ▲김영식 ▲김영안 ▲김영철 ▲김영철 ▲김옥선 ▲김용성 ▲김용수 ▲김용표 ▲김용해 ▲김운룡 ▲김운환 ▲김의기 ▲김의수 ▲김인섭 ▲김일승 ▲김일수 ▲김장년 ▲김장욱 ▲김재민 ▲김재완 ▲김정근 ▲김정숙 ▲김정식 ▲김정환 ▲김정희 ▲김종국 ▲김종섭 ▲김종현 ▲김주철 ▲김주현 ▲김준영 ▲김지현 ▲김창현 ▲김철수 ▲김철자 ▲김태승 ▲김한도 ▲김해도 ▲김현권 ▲김호경 ▲김호근 ▲김훈수 ▲나희진 ▲남궁용 ▲남기홍 ▲남대국 ▲남병화 ▲노무용 ▲노영림 ▲노홍길 ▲문병호 ▲문양수 ▲문인형 ▲민경덕 ▲민동근 ▲박남준 ▲박도일 ▲박영원 ▲박비미 ▲박빈진 ▲박옥순 ▲박원규 ▲박용수 ▲박용호 ▲박원우 ▲박원현 ▲박재길 ▲박재민 ▲박정무 ▲박종렬 ▲박종철 ▲박종규 ▲박창중 ▲박팔암 ▲박해용 ▲박희인 ▲박희준 ▲방 곤 ▲방정조 ▲배영희 ▲백동기 ▲백영철 ▲백대남 ▲봉종현 ▲서정욱 ▲서철원 ▲성백인 ▲성희용 ▲소광섭 ▲손문지 ▲손영희 ▲송 민 ▲송규정 ▲송기중 ▲송용진 ▲송재곤 ▲송준오 ▲송태훈 ▲신경섭 ▲신대철 ▲신병진 ▲신상우 ▲신영진 ▲신익성 ▲심사수 ▲심상철 ▲안계춘 ▲안화영 ▲양 원 ▲양갑식 ▲양영수 ▲여한수 ▲염규진 ▲염정민 ▲염태호 ▲오근영 ▲오선차 ▲오세정 ▲오수국 ▲오재규 ▲우영의 ▲우종택 ▲우영규 ▲원성기 ▲원용문 ▲유 영 ▲유경하 ▲유영수 ▲유보일 ▲유시명 ▲유종하 ▲유진당 ▲유초하 ▲유화선 ▲윤성남 ▲윤옥현 ▲윤의웅 ▲윤일병 ▲윤재정 ▲윤홍근 ▲이 랑 ▲이 준 ▲이건우 ▲이광소 ▲이광수 ▲이광수 ▲이광현 ▲이근남 ▲이근수 ▲이길원 ▲이달용 ▲이도영 ▲이동규 ▲이동성 ▲이명석 ▲이병훈 ▲이상욱 ▲이석우 ▲이석희 ▲이선숙 ▲이성화 ▲이영재 ▲이용우 ▲이원규 ▲이원재 ▲이인건 ▲이인기 ▲이인재 ▲이재술 ▲이재현 ▲이정란 ▲이정복 ▲이정숙 ▲이종록 ▲이종영 ▲이종혁

▲이준재 ▲이창규 ▲이창희 ▲이철우 ▲이통권 ▲이평우 ▲이형준 ▲이혜봉 ▲이홍운 ▲이희열 ▲이희용 ▲임광순 ▲임동규 ▲임성기 ▲임인철 ▲임형택 ▲장석환 ▲장세열 ▲장인협 ▲장종학 ▲전대식 ▲전도율 ▲전동성 ▲전만수 ▲전병학 ▲전인영 ▲정 광 ▲정 탄 ▲정만조 ▲정복근 ▲정연권 ▲정용승 ▲정운택 ▲정대식 ▲정한규 ▲정해용 ▲정해일 ▲정형기 ▲조계찬 ▲조규형 ▲조성호 ▲조순문 ▲조순자 ▲조완규 ▲조재신 ▲조정제 ▲조한제 ▲조홍태 ▲주강수 ▲차홍봉 ▲채경숙 ▲채기원 ▲채홍기 ▲전정락 ▲최병두 ▲최상일 ▲최상훈 ▲최영부 ▲최영호 ▲최옥식 ▲최용찬 ▲최일환 ▲최진영 ▲최태호 ▲추국엽 ▲하이영 ▲하인경 ▲하태권 ▲한단식 ▲한발숙 ▲한영국 ▲한영환 ▲한우근 ▲한일상 ▲한철수 ▲한철순 ▲홍경화 ▲홍광하 ▲홍성진 ▲홍성훈 ▲홍승재 ▲홍영남 ▲홍영백 ▲황영선 ▲황원의 ▲황운석

◇ 美 術 大 學

▲강영봉 ▲강영수 ▲구 상 ▲구은영 ▲김 현 ▲김경수 ▲김경숙 ▲김경애 ▲김복기 ▲김성연 ▲김소선 ▲김승희 ▲김영대 ▲김영혜 ▲김원중 ▲김종학 ▲김춘지 ▲김태욱 ▲김형주 ▲김호득 ▲나경문 ▲남 철 ▲문기선 ▲민선경 ▲박경희 ▲박근호 ▲박세원 ▲박연도 ▲박재호 ▲박종대 ▲박지선 ▲박종훈 ▲박영지 ▲변진희 ▲부현일 ▲서경덕 ▲신승준 ▲신완식 ▲심문섭 ▲심자자 ▲심화지 ▲안명국 ▲안종문 ▲오홍종 ▲우병락 ▲원묘희 ▲유영수 ▲유연식 ▲유재국 ▲이강소 ▲이계인 ▲이거조 ▲이거향 ▲이낙훈 ▲이동용 ▲이명재 ▲이봉숙 ▲이성은 ▲이승희 ▲이영애 ▲이용국 ▲이태영 ▲이환범 ▲임준성 ▲정경석 ▲정수아 ▲조재규 ▲조재영 ▲지은미 ▲최기숙 ▲최병상 ▲최성배 ▲최성숙 ▲최지희 ▲최정희 ▲추명희 ▲현지연 ▲홍경희 ▲홍동식 ▲홍성진 ▲홍순부 ▲홍영인 ▲홍정희 ▲황남채 ▲황민지 ▲황희희

◇ 法 科 大 學

▲가범현 ▲강 훈 ▲강기철 ▲강명식 ▲강복수 ▲강수용 ▲강신섭 ▲강원일 ▲강재현 ▲강현준 ▲강희철 ▲고완석 ▲고의영 ▲고준환 ▲곽무근 ▲구지민 ▲구지순 ▲구충서 ▲구충화 ▲권경식 ▲권수중 ▲권연상 ▲권영세 ▲권영순 ▲권혁구 ▲김 창 ▲김 철 ▲김경선 ▲김경우 ▲김경현 ▲김경희 ▲김국진 ▲김귀복 ▲김근대 ▲김기경 ▲김기현 ▲김대성 ▲김대식 ▲김도인 ▲김동철 ▲김병철 ▲김상배 ▲김성수 ▲김성현 ▲김수철 ▲김순평 ▲김승욱 ▲김영기 ▲김영대 ▲김영배 ▲김영배 ▲김영빈 ▲김영상 ▲김영선 ▲김영식 ▲김영환 ▲김용준 ▲김용환 ▲김원주 ▲김우규 ▲김운기 ▲김을영 ▲김응조 ▲김인승 ▲김재규 ▲김재물 ▲김재영 ▲김재호 ▲김정삼 ▲김정현 ▲김정환 ▲김종근 ▲김종기 ▲김종률 ▲김종민 ▲김주옥 ▲김종기 ▲김종률 ▲김종민 ▲김주옥 ▲김주인 ▲김주현 ▲김종연 ▲김지수 ▲김지영 ▲김진국 ▲김진영 ▲김태배 ▲김태훈 ▲김택수 ▲김평남 ▲김덕민 ▲김해신 ▲김현수 ▲김호룡 ▲김희용 ▲남기훈 ▲노생민 ▲노재관 ▲노홍희 ▲노세경 ▲노지훈 ▲동 훈 ▲류수열

▲명동성 ▲문성우 ▲문창성 ▲박노문 ▲박민수 ▲박상선 ▲박상일 ▲박성수 ▲박양현 ▲박용일 ▲박우순 ▲박익환 ▲박재원 ▲박정식 ▲박정하 ▲박종익 ▲박종철 ▲박지영 ▲박천서 ▲박태경 ▲박태훈 ▲박형일 ▲박호서 ▲박희상 ▲방계성 ▲방동훈 ▲방문문 ▲배달순 ▲배병우 ▲배용재 ▲백상현 ▲백세웅 ▲백창수 ▲변영훈 ▲서돈암 ▲서상원 ▲서상현 ▲서재국 ▲서태운 ▲선우윤 ▲성맹문 ▲성민섭 ▲손경덕 ▲손기호 ▲손석주 ▲송홍섭 ▲신교준 ▲신동승 ▲신동원 ▲신석호 ▲신종현 ▲신현일 ▲신호현 ▲심영수 ▲심익석 ▲안기영 ▲안대현 ▲안병익 ▲안병환 ▲안영도 ▲안재홍 ▲안창수 ▲양승현 ▲양정석 ▲염기창 ▲오경락 ▲오동수 ▲오상영 ▲오상태 ▲오승진 ▲오시열 ▲오종현 ▲우양규 ▲원은섭 ▲유경득 ▲유기준 ▲유만근 ▲유봉수 ▲유시동 ▲유영상 ▲유영철 ▲유영준 ▲유재배 ▲유재선 ▲유정현 ▲유철현 ▲윤민준 ▲윤복근 ▲윤익수 ▲윤재열 ▲윤종근 ▲윤호일 ▲이 준 ▲이강수 ▲이건형 ▲이정우 ▲이정철 ▲이정호 ▲이관진 ▲이교훈 ▲이규원 ▲이근원 ▲이근화 ▲이기영 ▲이기환 ▲이대우 ▲이동진 ▲이문수 ▲이미현 ▲이민수 ▲이법복 ▲이상도 ▲이상룡 ▲이상민 ▲이상환 ▲이석영 ▲이성욱 ▲이성준 ▲이성호 ▲이세훈 ▲이승용 ▲이영권 ▲이영의 ▲이영재 ▲이오영 ▲이용훈 ▲이윤식 ▲이일우 ▲이재덕 ▲이재성 ▲이재성 ▲이재원 ▲이전우 ▲이제관 ▲이종진 ▲이종현 ▲이주성 ▲이주성 ▲이진현 ▲이춘근 ▲이충범 ▲이태식 ▲이태운 ▲이태화 ▲이현영 ▲이현욱 ▲이형진 ▲이형하 ▲임 경 ▲임광규 ▲임부섭 ▲임복근 ▲임성권 ▲임순목 ▲임인식 ▲임용원 ▲임철호 ▲장 권 ▲장명봉 ▲장준철 ▲장호중 ▲정 창 ▲정병석 ▲정성문 ▲정의중 ▲정준영 ▲정현국 ▲조관기 ▲조규홍 ▲조남돈 ▲조남현 ▲조동욱 ▲조영근 ▲조용무 ▲조인화 ▲조정규 ▲조현준 ▲조준철 ▲조홍식 ▲조후준 ▲주석영 ▲주우식 ▲주현길 ▲차종호 ▲차철순 ▲차한성 ▲차현국 ▲채 윤 ▲천대성 ▲천성관 ▲천인수 ▲최거훈 ▲최동규 ▲최병각 ▲최병덕 ▲최병무 ▲최상욱 ▲최성진 ▲최성훈 ▲최연택 ▲최영희 ▲최우석 ▲최재호 ▲최재훈 ▲최정현 ▲최종고 ▲최종립 ▲최준준 ▲한 정 ▲한민기 ▲한명관 ▲한상근 ▲한용석 ▲한원규 ▲한운섭 ▲한택재 ▲한성희 ▲허은강 ▲현복수 ▲홍기갑 ▲홍성필 ▲홍영택 ▲황병기 ▲황영욱 ▲황창영 ▲황정모 ▲황희철

◇ 師 範 大 學

▲강성주 ▲강철용 ▲강희동 ▲곽병선 ▲구본학 ▲권 곤 ▲권경중 ▲권영호 ▲권유상 ▲권정득 ▲권준진 ▲김 인 ▲김 철 ▲김경자 ▲김경하 ▲김경희 ▲김공대 ▲김광수 ▲김광하 ▲김기민 ▲김길순 ▲김낙영 ▲김남욱 ▲김덕민 ▲김덕희 ▲김동배 ▲김동진 ▲김두열 ▲김명순 ▲김명훈 ▲김미선 ▲김병국 ▲김복근 ▲김봉규 ▲김삼순 ▲김상현 ▲김석규 ▲김선식 ▲김선주 ▲김순일 ▲김영관 ▲김영국 ▲김영진 ▲김영현 ▲김영희 ▲김옥성 ▲김용석 ▲김용진 ▲김인숙 ▲김인숙 ▲김일조 ▲김재영 ▲김정길 ▲김정문 ▲김정현 ▲김정호

▲김종석 ▲김종욱 ▲김종환 ▲김죽희 ▲김지은 ▲김진후 ▲김철용 ▲김종희 ▲김태연 ▲김학기 ▲김학수 ▲김혜정 ▲나상환 ▲나문운 ▲남기경 ▲남한식 ▲노병룡 ▲노일양 ▲문정환 ▲박 재 ▲박갑순 ▲박명학 ▲박배훈 ▲박성수 ▲박성덕 ▲박철 ▲박영덕 ▲박영목 ▲박운서 ▲박인근 ▲박재근 ▲박재희 ▲박정모 ▲박정자 ▲박종근 ▲박지원 ▲박진규 ▲박춘식 ▲방영선 ▲방재곤 ▲방정애 ▲백성준 ▲봉정모 ▲서수현 ▲서정을 ▲서형래 ▲성기중 ▲성본섭 ▲소재익 ▲송기영 ▲송상남 ▲송남순 ▲송동수 ▲송옥화 ▲송재희 ▲송정현 ▲신 영 ▲신관규 ▲신동철 ▲신봉희 ▲신성택 ▲신영애 ▲신용국 ▲신의범 ▲신인식 ▲신준국 ▲신하영 ▲신해순 ▲신홍균 ▲심상필 ▲안규철 ▲안선애 ▲안정희 ▲양국성 ▲양기석 ▲여병구 ▲여원해 ▲오건주 ▲오기세 ▲오만원 ▲오성환 ▲우근룡 ▲유기용 ▲유영숙 ▲유오진 ▲유정규 ▲유환옥 ▲윤기승 ▲윤석원 ▲이 중 ▲이강훈 ▲이경희 ▲이계운 ▲이광규 ▲이광복 ▲이기영 ▲이기중 ▲이덕수 ▲이덕환 ▲이동호 ▲이민철 ▲이민태 ▲이민호 ▲이박자 ▲이배희 ▲이법직 ▲이병관 ▲이병선 ▲이병주 ▲이병준 ▲이시행 ▲이상규 ▲이상용 ▲이상재 ▲이석주 ▲이성범 ▲이승원 ▲이승우 ▲이애주 ▲이양자 ▲이영배 ▲이영주 ▲이오봉 ▲이옥자 ▲이용수 ▲이우형 ▲이재승 ▲이재혁 ▲이정순 ▲이정환 ▲이종희 ▲이주현 ▲이준동 ▲이중석 ▲이진영 ▲이창구 ▲이태근 ▲이현수 ▲임공희 ▲임부철 ▲임수진 ▲임희준 ▲장봉의 ▲장선악 ▲장재규 ▲장한영 ▲장효원 ▲전동수 ▲전대수 ▲전병일 ▲전준대 ▲정경조 ▲정두영 ▲정민진 ▲정봉하 ▲정부길 ▲정영호 ▲정용길 ▲정인용 ▲정일동 ▲정재현 ▲정지오 ▲정태규 ▲정대범 ▲정환용 ▲조용란 ▲조용선 ▲조우길 ▲조익선 ▲조정기 ▲조정제 ▲조진현 ▲조천용 ▲조철원 ▲조초희 ▲조희식 ▲주봉노 ▲지은호 ▲지충성 ▲최 현 ▲최경식 ▲최근무 ▲최기남 ▲최명진 ▲최병진 ▲최성호 ▲최은식 ▲최재진 ▲최정현 ▲최종덕 ▲최대준 ▲최한규 ▲추성규 ▲추삼석 ▲하병관 ▲하영준 ▲한 녀 ▲한상주 ▲한성희 ▲한천욱 ▲함오연 ▲함한숙 ▲허 련 ▲허현남 ▲허현도 ▲현승영 ▲홍성호 ▲홍성훈 ▲홍종범 ▲황경희 ▲황인일 ▲황적륜 ▲황정원 ▲황종복 ▲황진하

◇ 商 科 大 學

▲강 욱 ▲강두순 ▲강석홍 ▲강유식 ▲강중희 ▲강희희 ▲강태석 ▲경연소 ▲고병환 ▲고상목 ▲공광우 ▲곽영호 ▲구대서 ▲권이성 ▲김 욱 ▲김경모 ▲김길수 ▲김대영 ▲김도복 ▲김동녕 ▲김동인 ▲김동환 ▲김두하 ▲김명제 ▲김무홍 ▲김문수 ▲김범수 ▲김병기 ▲김병덕 ▲김봉현 ▲김부규 ▲김사홍 ▲김삼은 ▲김수환 ▲김영빈 ▲김영수 ▲김영희 ▲김옥윤 ▲김완수 ▲김용국 ▲김용술 ▲김용일 ▲김윤경 ▲김은수 ▲김재관 ▲김재진 ▲김재진 ▲김재진 ▲김정기 ▲김정우 ▲김정호 ▲김정훈 ▲김제삼 ▲김종남 ▲김종석 ▲김중수 ▲김진재 ▲김진호 ▲김창수 ▲김창진 ▲김철환 ▲김태경 ▲김택희 ▲김희석 ▲남국연 ▲남대우 ▲노준천 ▲미문호

▲문무상 ▲문성택 ▲문성환 ▲문운룡 ▲민형동 ▲박광규 ▲박덕신 ▲박복양 ▲박성출 ▲박세진 ▲박영대 ▲박인식 ▲박재범 ▲박정진 ▲박진홍 ▲박한수 ▲박환현 ▲박철 ▲박현식 ▲박홍서 ▲배재용 ▲배지열 ▲배진규 ▲백승태 ▲백창기 ▲변원욱 ▲복한채 ▲서광욱 ▲서동범 ▲서병환 ▲서성석 ▲성기환 ▲성백규 ▲소규영 ▲소근홍 ▲소창준 ▲소홍규 ▲송규현 ▲송무희 ▲송승호 ▲송인덕 ▲시갑수 ▲신문철 ▲신정용 ▲신종우 ▲신화성 ▲심재식 ▲안국진 ▲여영권 ▲염수명 ▲여구연 ▲염경준 ▲오광욱 ▲오세현 ▲오수길 ▲오정현 ▲오태열 ▲우상섭 ▲우영호 ▲우홍식 ▲원영준 ▲원정연 ▲유권상 ▲유노상 ▲유영식 ▲유병창 ▲유병민 ▲유병문 ▲윤정희 ▲이 단 ▲이정훈 ▲이국희 ▲이극종 ▲이근영 ▲이기용 ▲이기호 ▲이대영 ▲이덕조 ▲이동수 ▲이려기 ▲이만용 ▲이병선 ▲이병세 ▲이봉길 ▲이석순 ▲이석영 ▲이성재 ▲이세근 ▲이영상 ▲이영서 ▲이영선 ▲이영주 ▲이웅근 ▲이운우 ▲이은면 ▲이재등 ▲이재원 ▲이정규 ▲이정성 ▲이정재 ▲이정전 ▲이종범 ▲이종오 ▲이종환 ▲이재영 ▲이주희 ▲이중희 ▲이진무 ▲이찬구 ▲이창숙 ▲이창욱 ▲이창준 ▲이태종 ▲이태호 ▲이필원 ▲이한희 ▲이현철 ▲임석현 ▲임창무 ▲임호윤 ▲장기욱 ▲장기호 ▲장무환 ▲장안섭 ▲장인상 ▲장재기 ▲장학진 ▲전건호 ▲전문준 ▲전성재 ▲전유상 ▲전재승 ▲전창모 ▲정 단 ▲정기영 ▲정성용 ▲정세진 ▲정희희 ▲정용팔 ▲정인목 ▲정주범 ▲정희용 ▲조관호 ▲조남직 ▲조동희 ▲조영재 ▲조은우 ▲조의상 ▲조희경 ▲주석중 ▲지상진 ▲지창갑 ▲채수현 ▲최규현 ▲최덕근 ▲최도성 ▲최병로 ▲최영호 ▲최재재 ▲최재혁 ▲최재현 ▲최정주 ▲추수욱 ▲태재열 ▲한복희 ▲한석정 ▲함기창 ▲허 길 ▲허 석 ▲현인준 ▲현임중 ▲홍성표 ▲홍순태 ▲홍준기 ▲황병준 ▲황상교

◇ 獸 醫 科 大 學

▲고의식 ▲고주영 ▲구용희 ▲권순호 ▲권희동 ▲김 두 ▲김교형 ▲김덕원 ▲김동환 ▲김두명 ▲김병선 ▲김상희 ▲김영진 ▲김영철 ▲김용백 ▲김윤수 ▲김인기 ▲김일용 ▲김정용 ▲김정호 ▲김종태 ▲김주성 ▲김진명 ▲김창호 ▲김홍수 ▲나병무 ▲노병의 ▲명수남 ▲박민택 ▲박봉규 ▲박유순 ▲박종명 ▲박종목 ▲박진성 ▲박희준 ▲변승호 ▲변영근 ▲서정순 ▲소병재 ▲송기준 ▲송남훈 ▲송영보 ▲신래섭 ▲안재홍 ▲양창근 ▲우성태 ▲원문상 ▲원병희 ▲유승창 ▲유한성 ▲윤석순 ▲윤석정 ▲윤인현 ▲윤희정 ▲이병선 ▲이병욱 ▲이원준 ▲이우영 ▲이종하 ▲이진수 ▲이충범 ▲임인선 ▲임정수 ▲임복근 ▲정영희 ▲정용면 ▲정태규 ▲정대석 ▲조석봉 ▲한수남 ▲한홍윤 ▲허정희 ▲홍종수 ▲황명수

◇ 藥 學 大 學

▲강대홍 ▲강희경 ▲권성배 ▲권영환 ▲김 영 ▲김규형 ▲김근숙 ▲김근환 ▲김기봉 ▲김병식 ▲김병재 ▲김삼수 ▲김승덕 ▲김영길 ▲김영호 ▲김옥선 ▲김의식 ▲김재기 ▲김재환 ▲김정숙 ▲김정희 ▲김정희 ▲김조현 ▲김중운

▲김주희⑦ ▲김진아⑩ ▲김현옥⑩ ▲김혜주⑩
▲김효중⑦ ▲노동준⑦ ▲노일협⑦ ▲도상복⑦
▲도대준⑦ ▲류근호⑦ ▲박명호⑦ ▲박문기⑦
▲박승무⑦ ▲박시우⑦ ▲박영호⑦ ▲박정옥⑦
▲박태동⑦ ▲박현배⑦ ▲박형근⑦ ▲백기남⑦
▲변은자⑦ ▲서동화⑦ ▲서봉민⑦ ▲서성수⑦
▲손선일⑦ ▲손인자⑦ ▲손현아⑦ ▲송인학⑦
▲신복영⑦ ▲신성목⑦ ▲신정균⑦ ▲신화용⑦
▲심규장⑦ ▲오도근⑦ ▲오동환⑦ ▲우용렬⑦
▲우재민⑦ ▲윤선렬⑦ ▲윤계숙⑦ ▲이강영⑦
▲이기희⑦ ▲이대희⑦ ▲이명길⑦ ▲이범진⑦
▲이병성⑦ ▲이상구⑦ ▲이상호⑦ ▲이승하⑦
▲이승환⑦ ▲이은방⑦ ▲이정자⑦ ▲이종성⑦
▲이주완⑦ ▲이준형⑦ ▲이현태⑦ ▲임용완⑦
▲임이균⑦ ▲장선미⑦ ▲장영주⑦ ▲전계수⑦
▲정구충⑦ ▲정신화⑦ ▲정옥자⑦ ▲정용호⑦
▲정은희⑦ ▲정준희⑦ ▲조기창⑦ ▲조용훈⑦
▲조중현⑦ ▲차성애⑦ ▲채계순⑦ ▲채계화⑦
▲채병호⑦ ▲채영주⑦ ▲천길순⑦ ▲천승훈⑦
▲최규팔⑦ ▲한복영⑦ ▲한승명⑦ ▲한용팔⑦
▲한길환⑦ ▲허병기⑦ ▲홍기석⑦ ▲홍승철⑦
▲황광진⑦

◇音樂大學

▲강정숙③ ▲고순자③ ▲고춘선③ ▲김명희③
▲김민자⑦ ▲김선현⑦ ▲김영봉⑦ ▲김영숙⑦
▲김옥경⑦ ▲김정숙⑦ ▲김효순⑦ ▲남제진⑦
▲남수아⑦ ▲노희영⑦ ▲목인수⑦ ▲문병진⑦
▲박민희⑦ ▲박애경⑦ ▲박정자⑦ ▲박재정⑦
▲백의현⑦ ▲서계숙⑦ ▲서혜연⑦ ▲성심은⑦
▲송복자⑦ ▲송정이⑦ ▲신경옥⑦ ▲안혜선⑦

▲안희정⑦ ▲오의경⑦ ▲오건식⑦ ▲오용록⑦
▲오유애⑦ ▲유행웅⑦ ▲윤명구⑦ ▲윤미용⑦
▲윤진영⑦ ▲윤현주⑦ ▲이근호⑦ ▲이동남⑦
▲이명희⑦ ▲이방실⑦ ▲이석원⑦ ▲이선이⑦
▲이숙미⑦ ▲이승혜⑦ ▲이영숙⑦ ▲이영아⑦
▲이영자⑦ ▲이영자⑦ ▲이용일⑦ ▲이재민⑦
▲이재원⑦ ▲이정순⑦ ▲이창희⑦ ▲이관준⑦
▲이학주⑦ ▲이현자⑦ ▲이효분⑦ ▲임성미⑦
▲임은정⑦ ▲장기웅⑦ ▲장형원⑦ ▲전소영⑦
▲전해옥⑦ ▲정애련⑦ ▲정은자⑦ ▲정화자⑦
▲조동제⑦ ▲조원경⑦ ▲조현수⑦ ▲주일엽⑦
▲최구혜⑦ ▲최수연⑦ ▲한명희⑦ ▲홍영순⑦
▲홍종진⑦ ▲홍지영⑦ ▲황철익⑦

◇醫科大學

▲강문수④ ▲강영진④ ▲강진화④ ▲강치명④
▲강홍모④ ▲강희륜④ ▲공인호④ ▲권기악⑦
▲권오훈④ ▲김구상④ ▲김갑남④ ▲김동명④
▲김복호④ ▲김명아④ ▲김복석④ ▲김선원④
▲김성근④ ▲김성심④ ▲김소연④ ▲김영기⑦
▲김영덕⑦ ▲김우영④ ▲김용흥⑦ ▲김운수④
▲김인구⑦ ▲김일동④ ▲김정순④ ▲김종정④
▲김종근④ ▲김진천④ ▲김진호④ ▲김진환④
▲김충수④ ▲김충은④ ▲김충철④ ▲김학순④
▲김현우⑦ ▲김형규④ ▲김호성④ ▲김홍준⑦
▲김희진④ ▲노효근④ ▲동은실④ ▲명내혜④
▲문일영⑦ ▲문재환⑦ ▲민병섭④ ▲민정기④
▲박동립④ ▲박선재④ ▲박순일④ ▲박영수④
▲박용삼④ ▲박용수④ ▲박용일④ ▲박우택④
▲박용재④ ▲박운근④ ▲박운상④ ▲박재덕④
▲박중수④ ▲박찬무④ ▲박찬일④ ▲박현준④

▲방진현⑦ ▲백운진⑦ ▲서광륜④ ▲서교일④
▲서병태④ ▲서유현⑦ ▲서철원⑦ ▲선우성⑦
▲송재원⑦ ▲송현철⑦ ▲신미자⑦ ▲신시옥⑦
▲신하규⑦ ▲심정연⑦ ▲안경희⑦ ▲안규중⑦
▲안기주⑦ ▲안종호⑦ ▲양성범⑦ ▲양성현⑦
▲오준호⑦ ▲오준희⑦ ▲용상길④ ▲우성일⑦
▲우영남⑦ ▲원종희⑦ ▲유 준④ ▲유방환⑦
▲유세환⑦ ▲유영석⑦ ▲유영해⑦ ▲유영성⑦
▲유운정⑦ ▲유정현⑦ ▲유종근⑦ ▲윤경선⑦
▲윤광선⑦ ▲윤용구⑦ ▲이갑표⑦ ▲이강욱⑦
▲이강진⑦ ▲이경목⑦ ▲이관희⑦ ▲이대원⑦
▲이동규⑦ ▲이병문⑦ ▲이상국⑦ ▲이상일⑦
▲이상일⑦ ▲이상철⑦ ▲이석원⑦ ▲이수일⑦
▲이승남⑦ ▲이영우⑦ ▲이윤호⑦ ▲이재순⑦
▲이준희⑦ ▲이찬옥⑦ ▲이호민⑦ ▲임영식⑦
▲임영진⑦ ▲임재준⑦ ▲임홍철⑦ ▲장 광⑦
▲장순명⑦ ▲장정순⑦ ▲전경호⑦ ▲전규식⑦
▲전종민⑦ ▲정구현⑦ ▲정기석⑦ ▲정동진⑦
▲정문현⑦ ▲정재혁⑦ ▲조태준⑦ ▲주순오⑦
▲주일중⑦ ▲차인준⑦ ▲최악렬⑦ ▲최일형⑦
▲최하진⑦ ▲한규섭⑦ ▲한기준⑦ ▲한동환⑦
▲한두호⑦ ▲한명현⑦ ▲한문식⑦ ▲한정수⑦
▲한종희⑦ ▲한천식⑦ ▲한형주⑦ ▲함돈일⑦
▲허 현⑦ ▲홍기석⑦ ▲홍성환⑦ ▲홍승인⑦
▲홍용우⑦ ▲홍원선⑦

◇齒科大學

▲강대준⑦ ▲강병철⑦ ▲강봉기⑦ ▲강신구⑦
▲강신우⑦ ▲강문모⑦ ▲고성희⑦ ▲고영석⑦
▲곽현희⑦ ▲구기서⑦ ▲권순배⑦ ▲김강용⑦
▲김경남⑦ ▲김경옥⑦ ▲김관식⑦ ▲김광환⑦
▲김규진⑦ ▲김기국⑦ ▲김기수⑦ ▲김기홍⑦
▲김명영⑦ ▲김명철⑦ ▲김병린⑦ ▲김봉구⑦
▲김봉환⑦ ▲김상철⑦ ▲김성근⑦ ▲김시웅⑦
▲김신하⑦ ▲김연민⑦ ▲김영수⑦ ▲김영식⑦
▲김영진⑦ ▲김영환⑦ ▲김옥희⑦ ▲김용진⑦
▲김원겸⑦ ▲김원식⑦ ▲김우수⑦ ▲김재찬⑦
▲김정복⑦ ▲김정태⑦ ▲김종원⑦ ▲김주영⑦
▲김지수⑦ ▲김진명⑦ ▲김진태⑦ ▲김철희⑦
▲김택근⑦ ▲김해민⑦ ▲김현진⑦ ▲김혜영⑦
▲김홍석⑦ ▲김화봉⑦ ▲김준재⑦ ▲나춘화⑦
▲류준근⑦ ▲목길수⑦ ▲목성규⑦ ▲문성훈⑦
▲문학수⑦ ▲박경정⑦ ▲박경준⑦ ▲박경표⑦
▲박기호⑦ ▲박기호⑦ ▲박석상⑦ ▲박동기⑦
▲박상복⑦ ▲박승우⑦ ▲박옥련⑦ ▲박용규⑦
▲박용연⑦ ▲박인자⑦ ▲박종민⑦ ▲박종욱⑦
▲박주미⑦ ▲박철성⑦ ▲박태선⑦ ▲박용규⑦
▲방수남⑦ ▲백기석⑦ ▲백홍길⑦ ▲변기정⑦
▲사명희⑦ ▲상기중⑦ ▲설태희⑦ ▲성철재⑦
▲손우성⑦ ▲손화진⑦ ▲송광수⑦ ▲송광열⑦
▲송영희⑦ ▲송정보⑦ ▲송학선⑦ ▲신덕재⑦
▲신동준⑦ ▲신문창⑦ ▲신순일⑦ ▲심연택⑦
▲안병관⑦ ▲안상규⑦ ▲안창영⑦ ▲안효일⑦
▲안희용⑦ ▲양문섭⑦ ▲양수정⑦ ▲양우식⑦
▲양재희⑦ ▲오기돈⑦ ▲오성진⑦ ▲오인식⑦
▲왕성현⑦ ▲원문창⑦ ▲유양석⑦ ▲유주하⑦
▲윤대영⑦ ▲윤영수⑦ ▲이 경⑦ ▲이강주⑦
▲이광건⑦ ▲이규철⑦ ▲이기승⑦ ▲이기수⑦
▲이덕근⑦ ▲이동주⑦ ▲이만선⑦ ▲이병운⑦
▲이병태⑦ ▲이상덕⑦ ▲이상봉⑦ ▲이상표⑦
▲이상필⑦ ▲이선국⑦ ▲이선규⑦ ▲이선재⑦
▲이순규⑦ ▲이영림⑦ ▲이영종⑦ ▲이원철⑦
▲이인경⑦ ▲이장호⑦ ▲이재신⑦ ▲이정호⑦
▲이종오⑦ ▲이종철⑦ ▲이종호⑦ ▲이준기⑦
▲이창현⑦ ▲이창형⑦ ▲이해호⑦ ▲임성삼⑦
▲임승찬⑦ ▲임형우⑦ ▲정철호⑦ ▲전동진⑦
▲전해림⑦ ▲정규배⑦ ▲정낙연⑦ ▲정낙원⑦
▲정성창⑦ ▲정영완⑦ ▲정용식⑦ ▲정철표⑦
▲정태연⑦ ▲정행남⑦ ▲정호길⑦ ▲정호산⑦
▲정희태⑦ ▲조달문⑦ ▲조성진⑦ ▲조영환⑦
▲조종만⑦ ▲조창홍⑦ ▲차영남⑦ ▲최갑수⑦
▲최덕호⑦ ▲최병택⑦ ▲최세원⑦ ▲최수광⑦
▲최양근⑦ ▲최영희⑦ ▲추창규⑦ ▲탁미선⑦

▲하태성⑦ ▲하해근⑦ ▲한광수⑦ ▲한기철⑦
▲한병소⑦ ▲한정술⑦ ▲한태원⑦ ▲허만옥⑦
▲허석구⑦ ▲허준구⑦ ▲허준석⑦ ▲홍금표⑦
▲홍성준⑦ ▲홍현주⑦ ▲황영구⑦ ▲황정일⑦
▲황태주⑦

◇大學院

▲강영길⑦ ▲고재홍⑦ ▲권숙표⑦ ▲김권옥⑦
▲김내동⑦ ▲김성택⑦ ▲김순자⑦ ▲김용서⑦
▲문수진⑦ ▲박명자⑦ ▲박희희⑦ ▲박재용⑦
▲변정환⑦ ▲서명덕⑦ ▲성기옥⑦ ▲송영희⑦
▲신용배⑦ ▲안상형⑦ ▲안영섭⑦ ▲안현진⑦
▲유광호⑦ ▲윤경현⑦ ▲이기수⑦ ▲이남기⑦
▲이동호⑦ ▲이명호⑦ ▲이상용⑦ ▲이상욱⑦
▲이용만⑦ ▲이용옥⑦ ▲이재철⑦ ▲이정우⑦
▲이정의⑦ ▲이정주⑦ ▲임병민⑦ ▲전진표⑦
▲전태윤⑦ ▲정기성⑦ ▲정훈진⑦ ▲최준영⑦
▲최창호⑦ ▲한정호⑦

◇經營大學院

▲고성삼④ ▲김보민④ ▲김용범⑦ ▲김태영⑦
▲김호봉⑦ ▲박영희⑦ ▲박원봉⑦ ▲박홍식⑦
▲손영수⑦ ▲신동수⑦ ▲안병태⑦ ▲윤동식⑦
▲이강부⑦ ▲이정부⑦ ▲이동호⑦ ▲조한옥⑦
▲차윤석⑦

◇教育大學院

▲한덕규⑦ ▲황현익⑦

◇保健大學院

▲김성진⑦ ▲김영웅⑦ ▲김형동⑦ ▲박남영⑦
▲박당우⑦ ▲박영운⑦ ▲박재우⑦ ▲오장수⑦
▲윤기은⑦ ▲윤배중⑦ ▲윤인화⑦ ▲이두호⑦
▲이상훈⑦ ▲이한구⑦ ▲최상순⑦

◇司法大學院

▲허경만⑦

◇新聞大學院

▲박찬순⑦ ▲서기원⑦ ▲윤임술⑦ ▲이민희⑦

◇行政大學院

▲강우원⑦ ▲김경엽⑦ ▲김길조⑦ ▲김동호⑦
▲김상돈⑦ ▲김상진⑦ ▲김승정⑦ ▲김태인⑦
▲박영일⑦ ▲박정훈⑦ ▲이동준⑦ ▲이석봉⑦
▲이지언⑦ ▲이지철⑦ ▲이재호⑦ ▲임동남⑦
▲장만철⑦ ▲정강정⑦ ▲정여철⑦ ▲최상진⑦
▲허범도⑦

◇環境大學院

▲권영종⑦ ▲김영식⑦ ▲김우현⑦ ▲김재윤⑦
▲김진훈⑦ ▲김영복⑦ ▲박상락⑦ ▲박영철⑦
▲박학복⑦ ▲변주대⑦ ▲안영식⑦ ▲윤대식⑦
▲이광희⑦ ▲이춘택⑦ ▲정광섭⑦ ▲정우철⑦
▲채미옥⑦ ▲한태호⑦ ▲황송규⑦

◇최고경영자과정

▲강상진⑩ ▲강진경⑩ ▲고순복⑩ ▲권석우⑩
▲권정원⑩ ▲권태문⑩ ▲권혁홍⑩ ▲김광석⑩
▲김기용⑩ ▲김길부⑩ ▲김동문⑩ ▲김두환⑩
▲김보현⑩ ▲김봉규⑩ ▲김상호⑩ ▲김성동⑩
▲김성기⑩ ▲김성규⑩ ▲김성민⑩ ▲김성수⑩
▲김성호⑩ ▲김시영⑩ ▲김영동⑩ ▲김영웅⑩
▲김영인⑩ ▲김영일⑩ ▲김운학⑩ ▲김이환⑩
▲김인규⑩ ▲김재운⑩ ▲김정규⑩ ▲김정식⑩
▲김정욱⑩ ▲김종대⑩ ▲김주인⑩ ▲김주환⑩
▲김중규⑩ ▲김중성⑩ ▲김진재⑩ ▲김진형⑩
▲김춘길⑩ ▲김학관⑩ ▲김항구⑩ ▲나승렬⑩
▲남현일⑩ ▲도동환⑩ ▲문만수⑩ ▲문영일⑩
▲문우형⑩ ▲민명술⑩ ▲박기태⑩ ▲박노선⑩
▲박달용⑩ ▲박병민⑩ ▲박병재⑩ ▲박상규⑩
▲박선희⑩ ▲박수남⑩ ▲박순일⑩ ▲박순호⑩
▲박순호⑩ ▲박승효⑩ ▲박엽배⑩ ▲박유재⑩

▲박인철⑩ ▲박재상⑩ ▲박재울⑩ ▲박정훈⑩
▲박종관⑩ ▲박종형⑩ ▲박준영⑩ ▲박찬엽⑩
▲박준언⑩ ▲박현규⑩ ▲박희택⑩ ▲방민환⑩
▲배석두⑩ ▲배운섭⑩ ▲백규현⑩ ▲백복기⑩
▲백정기⑩ ▲변규섭⑩ ▲변종희⑩ ▲서영웅⑩
▲서진하⑩ ▲손창수⑩ ▲송두호⑩ ▲신동식⑩
▲신달일⑩ ▲신성택⑩ ▲신영주⑩ ▲신춘식⑩
▲신홍균⑩ ▲심갑보⑩ ▲심계진⑩ ▲안기욱⑩
▲안영복⑩ ▲안인환⑩ ▲안정호⑩ ▲양성욱⑩
▲여명현⑩ ▲우국일⑩ ▲우근민⑩ ▲우상우⑩
▲우영열⑩ ▲원동혁⑩ ▲유건수⑩ ▲유재명⑩
▲유준우⑩ ▲유한섭⑩ ▲유희수⑩ ▲윤국현⑩
▲윤성민⑩ ▲윤정목⑩ ▲윤정목⑩ ▲이경봉⑩
▲이경수⑩ ▲이광우⑩ ▲이기열⑩ ▲이기중⑩
▲이대용⑩ ▲이대희⑩ ▲이동준⑩ ▲이상운⑩
▲이성운⑩ ▲이성길⑩ ▲이승권⑩ ▲이연성⑩
▲이용근⑩ ▲이원호⑩ ▲이윤재⑩ ▲이용표⑩
▲이승삼⑩ ▲이인영⑩ ▲이종호⑩ ▲이종아⑩
▲이진선⑩ ▲이창호⑩ ▲이태교⑩ ▲이현도⑩
▲이현섭⑩ ▲이홍근⑩ ▲이희림⑩ ▲임성주⑩
▲임정빈⑩ ▲임춘현⑩ ▲장주상⑩ ▲장태원⑩
▲전경두⑩ ▲전지열⑩ ▲정달영⑩ ▲정선호⑩
▲정수원⑩ ▲정의숙⑩ ▲정준근⑩ ▲조광호⑩
▲조두희⑩ ▲조보래⑩ ▲조시남⑩ ▲조양호⑩
▲조진희⑩ ▲조왕진⑩ ▲주영복⑩ ▲주태홍⑩
▲차석용⑩ ▲채수삼⑩ ▲채의숙⑩ ▲최 열⑩
▲최경영⑩ ▲최병민⑩ ▲최수부⑩ ▲최오길⑩
▲최종원⑩ ▲최진길⑩ ▲최희중⑩ ▲피호배⑩
▲한경남⑩ ▲한무남⑩ ▲한성희⑩ ▲한정삼⑩
▲한중석⑩ ▲하대범⑩ ▲홍광철⑩ ▲홍연석⑩
▲황경노⑩ ▲황석희⑩ ▲황효선⑩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신철⑩ ▲곽문연⑩ ▲곽영구⑩ ▲국동길⑩
▲권영후⑩ ▲김 화⑩ ▲김동섭⑩ ▲김성길⑩
▲김인수⑩ ▲김형술⑩ ▲김후곤⑩ ▲남세현⑩
▲맹홍우⑩ ▲박기상⑩ ▲박노관⑩ ▲박우용⑩
▲박형주⑩ ▲박환기⑩ ▲손창근⑩ ▲송준일⑩
▲신길용⑩ ▲신용하⑩ ▲신현교⑩ ▲신현필⑩
▲양 명⑩ ▲양재석⑩ ▲염석훈⑩ ▲오영균⑩
▲오세화⑩ ▲유은목⑩ ▲이건창⑩ ▲이덕문⑩
▲이만우⑩ ▲이상희⑩ ▲이영균⑩ ▲이영우⑩
▲이원옥⑩ ▲이원철⑩ ▲이종대⑩ ▲이준각⑩
▲이초남⑩ ▲이충현⑩ ▲이희창⑩ ▲임재룡⑩
▲임준환⑩ ▲장병우⑩ ▲장용현⑩ ▲장일재⑩
▲전재홍⑩ ▲지상철⑩ ▲최재오⑩ ▲최종현⑩
▲한미학⑩ ▲현인주⑩ ▲홍은표⑩

◇고급금융과정

▲구대근⑦ ▲김정갑⑦ ▲김종영⑦ ▲손기룡⑦
▲손우성⑦ ▲손준철⑦ ▲오성열⑦ ▲유영규⑦
▲윤수중⑦ ▲윤홍식⑦ ▲이명근⑦ ▲이병성⑦
▲임우형⑦ ▲장지인⑦ ▲정정규⑦ ▲조상훈⑦
▲조영천⑦ ▲조용욱⑦ ▲최경석⑦ ▲홍재문⑦

지부분담금

◇독일지부

▲5백달러

◇오스트리아지부

▲5백달러

◇아르헨티나지부

▲5백달러

◇인도네시아지부

▲5백달러

월 계: 77,639,310
누 계: 354,517,620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본회는 지난 95년 9월부터 동창회관 관악홀을 보다 나은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동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출연받아 고급 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3백석의 의자가운데 2백60석은 동문 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40석의 의자를 제작하는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金明振(78년 法大卒)	△金承英(43기 ACAD)
△朴明潤(76년 保大院卒)	△朴鍾殷(56년 工大卒)
△卞永贊(83년 醫大卒)	△魚聖俊(73년 工大卒)
△李景宰(63년 文理大卒)	△林鍾斗(68년 商大卒)
△鄭昇太(30기 ACAD)	△崔 桓(65년 文理大卒)
△崔永洛(59년 師大卒)	△崔鍾順(55년 藥大卒)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 (02)702-2233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8년 7월 1일~7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이미선⑧

◇社會科學大學

▲윤영호⑧

◇家政大學

▲정영선⑦

◇經營大學

▲차재연⑧

◇文理科大學

▲심갑섭⑧

◇최고산업전략과정

▲이상희⑩ ▲전지명⑧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안부경④